宗敎界의 社會福祉活動 現況과 活性化 方案 硏究: 敎會의 社會福祉活動을 중심으로

金美淑
洪碩杓
李萬植
柳長春

조사연구보고서 99-01
ISBN 89-8187-202-3 93330

韓國保健社會硏究院

머 리 말

민간의 복지참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복지욕구를 전부 충족시켜줄 수 없게 되고 복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도 복지국가위기이후 민간부문이 복지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사회복지에서 공공부문이 재원부족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여 왔다.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복지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민간부문 중 종교계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종교인구가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종교계는 인적, 시설, 재정 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기독교 교회는 선교초기부터 사회복지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기독교를 포함한 기존의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체계는 갖추었으나, 현행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 및 체계성이 미흡하고 구호적이고 단기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회의 복지자원 현황과 복지재정, 복지 프로그램,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통해서 기독교계를 위시한 종교계가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해 주신 7개 교단의 목회

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 준 朴敏姸 硏究員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報告書를 검독하여 주신 李善雨 責任硏究員과 李賢珠 責任硏究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保健社會硏究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 11

第1章 序論 ····· 28
第1節 硏究의 背景 ····· 28
第2節 硏究目的 및 內容 ····· 31
第3節 硏究方法 ····· 32

第2章 民間의 社會福祉參與 ····· 36
第1節 福祉國家의 危機 ····· 36
第2節 社會福祉의 民營化 ····· 39
第3節 우리 나라 社會福祉에서 民間의 役割 ····· 48
第4節 小結 ····· 50

第3章 宗敎界의 社會福祉參與 ····· 53
第1節 宗敎의 社會的 機能과 逆機能 ····· 53
第2節 우리 나라 宗敎의 否定的 樣相 ····· 56
第3節 3大 宗敎의 社會福祉 參與 實態 ····· 57
第4節 宗敎界 社會福祉活動의 問題點 ····· 59

第4章 韓國敎會의 社會福祉活動 實態 ····· 63
第1節 調査對象 敎會 및 牧會者의 特性 ····· 63

第2節　教會의 社會福祉活動 現況 ····· 68
第3節　教會의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活動 現況 ····· 106
第4節　牧會者의 特性 ····· 118
第5節　教會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 ····· 127
第6節　實態調査結果 論議 ····· 134

第5章 美國教會의 社會福祉活動 ····· 138
第1節　教會社會福祉活動의 槪念 ····· 138
第2節　美國 教會社會福祉活動의 歷史的 背景 ····· 140
第3節　美國의 教會社會福祉活動 現況 ····· 142
第4節　美國 教會 社會福祉士 養性過程 ····· 154
第5節　韓國的 適用을 위한 提言 ····· 155

第6章 教會의 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 158

參考文獻 ····· 166

附　錄 ····· 173

表 目 次

〈表 1- 1〉 敎團別 調査對象 敎會 標本數 ····· 33
〈表 1- 2〉 敎團別 調査對象 敎會 最終標本數 및 應答率 ····· 34
〈表 3- 1〉 宗敎界 社會福祉機關·施設 運營 實態 ····· 57
〈表 4- 1〉 調査對象 敎會 特性 ····· 64
〈表 4- 2〉 調査對象 牧會者의 特性(1) ····· 66
〈表 4- 3〉 調査對象 牧會者의 特性(2) ····· 67
〈表 4- 4〉 敎會의 社會奉仕 使命에 대한 見解 ····· 68
〈表 4- 5〉 우리 나라 敎會의 地域社會福祉活動에 대한 見解 ···· 69
〈表 4- 6〉 所屬敎會의 地域社會福祉活動에 대한 見解 ····· 70
〈表 4- 7〉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 프로그램의 利用者 ····· 71
〈表 4- 8〉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地域住民의
利用 比率 ····· 72
〈表 4- 9〉 敎會의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 ····· 72
〈表 4-10〉 所屬敎會 社會福祉活動의 主擔當者 ····· 73
〈表 4-11〉 社會福祉事業 專擔有給 社會福祉專門家의 必要性 ···· 74
〈表 4-12〉 所屬敎會 社會福祉施設 運營 分野 ····· 75
〈表 4-13〉 兒童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76
〈表 4-14〉 靑少年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77
〈表 4-15〉 老人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78
〈表 4-16〉 障碍人 對象 프로그램 ····· 79

〈表 4-17〉 女性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80
〈表 4-18〉 失職者 및 露宿者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81
〈表 4-19〉 地域住民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 82
〈表 4-20〉 社會福祉活動에 주로 使用하는 施設 ····· 84
〈表 4-21〉 所屬敎會의 社會福祉를 위한 施設의 充分 程度 ··· 85
〈表 4-22〉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 人力의 充分 程度 ····· 86
〈表 4-23〉 所屬敎會 敎人의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呼應度 ··· 87
〈表 4-24〉 所屬敎會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地域住民의 呼應度 ·· 88
〈表 4-25〉 敎會社會福祉活動 弘報方法 ····· 89
〈表 4-26〉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弘報의 必要性 ····· 90
〈表 4-27〉 社會福祉活動의 弘報의 問題點 ····· 90
〈表 4-28〉 敎會運營 福祉施設의 財政 充當 ····· 92
〈表 4-29〉 社會福祉活動에 支出되는 財政比率 ····· 93
〈表 4-30〉 特別獻金 및 募金 經驗 ····· 94
〈表 4-31〉 特別獻金 및 募金의 目的 ····· 95
〈表 4-32〉 社會福祉事業費의 適正性 ····· 96
〈表 4-33〉 適正 社會福祉事業費 豫算 比率 ····· 97
〈表 4-34〉 地域內의 他敎會와의 關係 ····· 98
〈表 4-35〉 公共機關과의 關係 ····· 99
〈表 4-36〉 敎會 開放 與否 ····· 100
〈表 4-37〉 地域住民들을 위한 프로그램 運營 與否 ····· 101
〈表 4-38〉 必須 社會福祉 活動分野 ····· 102
〈表 4-39〉 社會福祉活動 遂行의 어려운 點 綜合點數 ····· 103
〈表 4-40〉 社會福祉活動時 가장 必要한 것 ····· 105

〈表 4-41〉 敎會 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 105
〈表 4-42〉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 프로그램 實施 與否 ·· 107
〈表 4-43〉 社會福祉機關과 連繫한 自願奉仕活動 ····· 108
〈表 4-44〉 敎人들의 自願奉仕 始作 時期 ····· 109
〈表 4-45〉 社會福祉活動에 參與하는 信徒數 ····· 110
〈表 4-46〉 自願奉仕活動이 敎會에 미치는 影響 ····· 111
〈表 4-47〉 自願奉仕者의 活用과 地域社會 關係의 改善 ····· 112
〈表 4-48〉 敎人들의 自願奉仕活動에서의 隘路點 ····· 113
〈表 4-49〉 自願奉仕豫算 擴充 ····· 114
〈表 4-50〉 自願奉仕者들의 問題點 ····· 115
〈表 4-51〉 自願奉仕者 管理 ····· 116
〈表 4-52〉 自願奉仕者 敎育·訓練 ····· 117
〈表 4-53〉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重要性 ····· 118
〈表 4-54〉 自願奉仕活動 參與 經驗 ····· 119
〈表 4-55〉 地域社會 自願奉仕活動 參與 後 意識 ····· 119
〈表 4-56〉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態度 ····· 120
〈表 4-57〉 自願奉仕 訓練 및 敎育 經驗 ····· 121
〈表 4-58〉 自願奉仕 意向 ····· 122
〈表 4-59〉 自願奉仕 參與動機 ····· 123
〈表 4-60〉 自願奉仕 勸奬 ····· 124
〈表 4-61〉 地域社會 福祉施設이나 機關으로부터의 要請 ··· 125
〈表 4-62〉 地域社會 福祉機關 訪問 程度 ····· 126
〈表 4-63〉 定期的인 訪問의 경우의 訪問 頻度 ····· 127
〈表 4-64〉 社會福祉豫算과의 相關關係 ····· 128

〈表 4-65〉 牧會者 特性에 따른 適正 社會福祉豫算 比率 … 129
〈表 4-66〉 敎人數 增減과 社會福祉 活潑性과의 關係 …… 130
〈表 4-67〉 敎人數 增感과 敎人 및 住民의 社會福祉
呼應度와의 關係 …… 131
〈表 4-68〉 敎會 社會福祉活動 活潑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回歸分析 …… 133

그림目次

〔그림 2-1〕 民營化의 分類 …… 43
〔그림 5-1〕 루이빌市 13개 地域社會 使役機關 地圖 …… 153

要 約

Ⅰ. 序論

1. 硏究背景 및 目的

–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福祉財政이 삭감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福祉多元主義(Welfare Pluralism) 혹은 福祉混合(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됨.

  •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됨.

– 우리 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복지욕구는 증대하였으나,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人的·物的 資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

  • 또한 국방 및 경제성장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豫算의 不足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의 복지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

–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民間 非營利機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문은 宗敎界임.

  •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관임.

- 종교계는 人的資源, 施設資源, 財政資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貧民救濟 및 社會奉仕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음.
  -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행 복지활동은 전문성 및 체계성이 미흡하고, 보유자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활동 분야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상태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계 중에서 改新敎 敎會의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함.
  - 基督敎의 福祉財政, 社會福祉活動 및 프로그램, 自願奉仕活動, 地域社會와의 關係 등을 파악하여 기독교계의 복지참여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敎會의 社會福祉參與 方案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硏究方法

- 본 연구는 크게 理論的 硏究와 實態調査 두 가지로 나뉨.
  - 사회복지에서의 민간의 역할과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외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국내·외의 문헌을 연구하였음.
  -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음.

-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기독교의 대표적인 7개 교단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이 연구는 응답자 선정상의 편의(selection bias)문제가 있어 이를 교단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하며, 연구대상을 개신교에 한정하여 우리 나라 종교계 전반의 사회복지활동을 비교·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Ⅱ. 民間의 社會福祉參與

1. 福祉國家의 危機

- 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예방·완화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포함함.
-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확대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이러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福祉國家의 危機'라고 명명함.

2. 民營化

-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란 사회복지의 財源, 生産, 傳達 과정을 公共部門에서 民間部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민영화란 福祉供給의 主體가 국가에서 민간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및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

효율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임.

-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고,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하였음.

3. 우리 나라 社會福祉에서 民間의 役割

-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도입함.
  -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福祉多元主義를 지향함.
  -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經濟不況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함.
- 우리 나라의 民間福祉機構로는 각 종교기관, 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인력은행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救貧 또는 慈善活動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地域社會福祉活動을 주로 담당함.
-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에서 민간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국가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해방과 6·25,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성장하여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음.
  - 첫째, 組織의 體系性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중복하여 공급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함.

- 둘째, 專門人力 및 財政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 그리고 민간부문은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셋째, 機關間의 連繫가 미흡하고,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게 편재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함.

Ⅲ. 宗敎界의 社會福祉 參與

1. 宗敎의 社會的 機能과 逆機能

— 이원규에 의하면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社會的 機能을 수행함.

- 첫째는 社會統合(social integration)의 기능임.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 의식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는 社會變形(social transformation) 혹은 社會變動(social change)의 기능임. 의도적이던 아니던 종교가 사회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셋째는 社會統制(social control)의 기능임. 기성 사회의 규범들과 가치들을 성화시켜,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집단 목표의 우월성을, 개인적 충동보다는 집단적 훈련의 우월성을 유지하게 함.

2. 우리 나라 宗敎의 否定的 樣相

— 조흥식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종교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부정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음.

- 첫째, 우리 나라의 종교는 祈福信仰的 성격이 강하여, 종교에서 개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축복문제에만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회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없음.
- 둘째, 保守主義 傳統이 강한 경향이 있어, 전통과 권위를 중히 여기며,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변화의 기능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셋째, 教勢 成長主義 성향이 강하여 자신이 속한 교파의 성장과 확장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웃의 문제나 사회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됨.
- 넷째, 소외계층과 거리를 두어 종교가 中産層化 되고 貴族化 되면서 사회적 공헌을 하지 못하는 종교의 모습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함.
- 다섯째, 脫歷史的 성격을 갖는 경향이 커서 의식이 있는 중산층, 교육받은 엘리트층, 변화지향적인 젊은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됨.

3. 3大 宗教의 社會福祉 參與 實態

– 우리 나라의 宗教人口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인구 중 각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佛教가 48.8%, 改新教가 36.4%, 가톨릭이 11.8%임.

– 기존의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는 갖추었으나, 사회복지활동의 실제에 있어 專門性, 保有資源의 정확한 규모나 活動分野에 대한 파악, 활동에 필요한 弘報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傳達體系상의 문제가 있음

- 우리 나라 공식 社會福祉施設의 절대다수가 종교와 관련된 운영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4. 敎會의 社會福祉活動上의 問題點

- 3대 종교는 최근까지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함 편으로 이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음.
- 불교는 신도수에 비해서 복지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편임.
  - 이는 관심과 추진력을 가진 승려의 부족, 기성 불교 지도자 전체의 무관심, 종단 총무원의 무관심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음.
- 가톨릭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은 갖추었고 활동도 양적인 면에서는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 조직간의 유기적 관계나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활동의 내용과 방법 또한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기독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낮은 의식, 사회봉사에 대한 교회의 재정구조 문제, 교회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의 문제가 있음.

Ⅳ. 韓國敎會의 社會福祉活動 實態

1. 調査對象의 特性

- 敎會 特性
  - 7개 敎團의 比率은 예장 통합(30.7%), 예장 합동(24.2%), 기장(4.4%), 감리교(16.8%), 침례교(7.6%), 성결교(12.2%), 구세군(4.1%)임.
  - 敎會位置는 대도시, 중도시, 군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중하층의 주거지역에 주로 위치함.

- 敎會規模는 출석교인 100인 이하인 소규모 교회가 다수임.

— 牧會者 特性
  - 40대 남자 목사가 많으며, 대부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음.
  - 현재의 교회에 부임한지 10년 이하가 70% 정도를 차지함.

2.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現況

— 사회복지활동이 교회의 기본 사명임에는 동의(85.9%)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參與는 목회자의 55.3%가 저조하다고 평가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利用對象者와 관련하여 84.2%가 地域住民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 社會福祉活動 專門家가 대부분 없었음(91.9%).
  - 주로 牧會者(59.0%)나 宣敎會(18.5%)가 담당하고 있어, 현재 실시하는 복지활동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떨어짐.
  - 목회자의 48.6%가 有給 社會福祉 專門家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社會福祉施設 運營 分野는 兒童福祉施設이 23.2%로 가장 많고, 다음은 老人福祉施設(11.0%), 靑少年福祉施設(7.6%), 障碍人福祉施設(2.4%), 女性福祉施設(2.0%), 浮浪人福祉施設(1.7%), 社會福祉關(1.7%)의 순으로 나타남.
  - 兒童 對象으로는 어린이 선교원(14,1%)과 탁아소(8.8%) 시설이 가장 많았고,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13.7%)과 공부방(12.4%)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 靑少年 對象 시설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7.1%), 장학사업(45.9%)과 소년소녀가장돕기(33.4%)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 老人 對象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노인대학(6.6%), 양로원(2.0%), 노인정(1.0%)이 있고, 프로그램은 양로원 방문(32.7%)과 경로잔치(32.2%), 노력봉사(20.2%)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실시함.
- 障碍人 對象 시설은 없고, 프로그램으로는 노력봉사(18.0%)와 가정상담(12.7%), 수술비 보조(7.6%) 등이 실시되고 있음.
- 女性 對象으로 모자원을 운영(32.4%)하고 있고, 주부교실(5.9%), 직업훈련 및 알선(1.2%)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임.
- 失職者 및 露宿者 對象으로는 3.2%가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재정후원(10.0%)과 노숙자 식사제공(7.8%), 직업안내(2.9%)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地域住民 對象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는 주민 독서실(1.2%)이 있고, 빈민구조(30.7%), 병원방문(22.9%), 이재민 구호(16.1%), 의료봉사 및 진료(12.4%)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율도 비교적 높음.

–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는 시설은 敎會 및 附帶施設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敎會運營 福祉施設은 10.6%에 불과함.

- 구세군의 경우 교회 이외의 시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장 합동측은 교회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81.7%로 지배적임.

–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다(82.5%)고 지적하고 있음.

–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呼應度는 교인보다 오히려 지역주민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교단별로 보면, 교인의 호응도에 있어서 구세군과 감리교가 높고 침례교와 성결교가 낮은 반면, 지역주민 호응도는 구세군이 월등히 높고 예장 합동측이 가장 낮았음.

— 교회사회복지활동의 弘報는 교회내 광고(38.1%)와 교인을 통한 홍보(33.7%)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교회내로 한정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 필요성을 72.9%가 절감하고 있음.

- 홍보 상의 문제점으로는 교인의 무관심(25.7%)과 홍보비 부족(25.4%)이 가장 많이 지적됨.

— 사회복지활동의 費用은 敎會 獻金(56.4%)과 個人 後援金(26.6%), 共同募金(7.8%)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政府支援金(5.5%)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74.9%의 교회가 社會福祉施設 運營이나 水害救護를 위한 특별헌금이나 모금을 한 경험을 갖고 있었음.

— 사회복지활동에 지출되는 재정은 전체 교회재정의 1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구세군의 財政支出比率이 가장 높았음.

-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비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87.6%로 교단의 차이 없이 지배적임. 적정한 社會福祉事業費는 豫算의 5-10%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41.1%).

— 현재 지역내 他敎會나 公共機關과의 關係가 매우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조 관계에 있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협조하고 있는 실정임.

— 교회가 必須的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해야 할 분야는 老人福祉가 2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현재 많이 하고 있는 兒童福祉는 필요성 인지도가 낮았음.

- 女性福祉 분야는 현재도 저조하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교회사회복지활동 수행의 어려운 점으로는 財政問題에 대한 지적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밖에 시설과 공간 부족, 지식과 기술 부족, 신자들의 인식 부족 등이 문제임.

–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敎會社會福祉 認識과 支持(42.3%)가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物的 支援(26.8%)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3. 敎會의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活動 現況

–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를 실시하는 교회는 전체의 35.6%였고, 구세군과 감리교, 기장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제공하고 있었음.

– 社會福祉機關과 連繫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회는 전체의 53.2%로 나타났고, 구세군, 성결교, 예장 통합의 참여율이 높았음.

– 자원봉사를 시작한 시기는 최근 5년 이내인 경우(65.6%)가 가장 많아 자원봉사활동의 본격화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교회신도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함.

– 자원봉사활동은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47.9%), 신앙훈련(40.6%)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됨.

- 地域社會와의 關係改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74.0%)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교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어려운 것은 時間不足(36.6%)과 認識不足(24.0%) 때문이며, 자원봉사자들은 專門性 缺如(49.0%)가 가장 큰 문제임.

- 현재 자원봉사자를 위한 敎育·訓練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33.3%나 되었음.

— 自願奉仕者 管理는 현재 목회자가 직접하는 경우가 61.9%로 가장 많았음.

4. 牧會者의 特性

— 자원봉사활동의 重要性은 목회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96.8%).
- 69.9%의 목회자가 자원봉사에 參與한 經驗이 있고, 자원봉사 訓練 및 敎育을 받은 목회자는 33.8%였음.

— 전체 목회자의 52.7%가 자원봉사에 積極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94.5%가 자원봉사활동에 參與 意向을 가지고 있었음.
- 교인들에게 자원봉사를 勸奬하는 목회자는 75.8%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후에 타인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발전되며, 주민과의 관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예수님 가르침(40.7%)과 이웃을 돕고 싶다(28.2%), 사회 기여(15.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활동기금이나 자문, 활동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의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때 대부분(80% 이상)이 참여에 응하였음.

— 地域社會福祉機關에 정기적으로(11.7%) 혹은 특별한 경우(69.4%) 訪問하고 있음.

5.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分析

— 敎人이나 地域住民의 呼應度가 높은 교회일수록 社會福祉豫算을

많이 책정하고 있었으며, 이들 교회가 적정 사회복지예산도 많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젊은 목회자들이 적정 사회복지예산을 높게 잡고 있음.
-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교회가 敎人數의 增加率이 높았고, 교인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呼應度가 높은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함.
- 교회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牧會者 認識, 敎會의 所在地,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 社會福祉人力의 充分程度, 敎人 및 地域住民의 關心 등이 유의한 것으로 판명됨.

Ⅴ. 美國敎會의 社會福祉活動

1. 敎會社會福祉活動의 槪念 및 歷史

- 敎會社會福祉活動이란 교회라는 조직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임.
- 청교도의 정의정신이나 퀘이커의 평화사상과 같은 美大陸 開拓敎會의 精神과 思想은 오늘날의 미국교회들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뿌리내려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바로 이러한 정신 위에 기초하여 성장하여 왔음.
- 1991년에 교회는 약 66억 달러를 社會運動에 기부했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원봉사에 활용한 시간은 약 18억 시간이라고 함.

2. 美國敎會 社會福祉活動 現況

- 個敎會에서 교회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개발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

들은 매우 다양함.

- 아동, 노인, 부랑인, 빈곤가족,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교단이 개입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지역교회에서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경우 그리고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크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함.

– 미국에서는 도시지역의 교회들이 聯合하여 지역사회의 특정한 욕구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교회묶음(church clustering) 또는 地域社會使役(community ministries)이라고 말함.

- 이런 기관들의 典型的인 事業은 긴급부조, 음식공급 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방과후 클럽, 편부모 집단, 알코올중독자 모임, 그리고 모든 연령집단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3. 美國敎會 社會福祉活動의 敎育

– 미국 교회사회복지활동을 위한 敎育課程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가 있음.

- 첫째는 牧會學 석사과정에서 교회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과목들을 일정한 분량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교육임.
- 둘째는 神學을 위주로 하고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회목회자(Social Minister) 양성과정임.
- 셋째는 社會福祉學을 주로 하고 신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교회사회복지사(Church Social Worker) 양성과정임.

4. 韓國的 適用을 위한 提言

– 한국교회가 미국의 교회사회복지활동으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이

두 가지, 즉, 專門化와 連帶性의 强化임.

- 대부분의 교회에는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고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인데, 그 주된 이유는 신학과 사회복지학 양 분야에 대한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교회의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y)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Ⅵ.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1. 敎會社會福祉 專門家 導入 및 養性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필요가 있음.

– 신학교들과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이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專門人力을 양성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

– 교회사회복지 전문직을 인증하는 協議體와 거기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神學的인 素養과 社會福祉 專門性의 素養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開發이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됨.

– 사회복지전문가를 통해서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모든 교회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량에 맞게, 또 地域社會의 要求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회의 사회복지분야는 발달할 것임.

2. 牧會者의 社會福祉活動 意識 및 自律性 提高

-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當爲性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소속교회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음.
  - 그 주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기 때문임.
- 또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牧會領域의 分業化와 自律性을 보장하는 교회의 組織的 土壤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함.

3. 敎會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優先順位 賦與 및 豫算擴充

-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회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優先順位를 調整하는 일이 필요함.
  - 奉仕에 대한 우선순위는 傳道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하위에 두기 때문에 언제나 봉사적 사명은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난 후 남는 여력으로 하고 있음.
- 최소한 社會福祉豫算을 교회 總豫算의 10%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임.

4. 敎會間 協力體系 構築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個교회 原則의 部分的 是正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協力網의 强化가 필요함.
- 자원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합하여 分野別로 福祉 프로그램을 分擔

運營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활발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노인과 빈민이 몰려있는 농·어촌지역의 교회들과의 연계도 필요함.

• 대도시의 大型敎會들은 이러한 농·어촌지역교회와 結緣을 맺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資源들을 支援해 주어야 할 것임.

5. 社會福祉活動의 制度的 活性化

— 교회의 人的, 物的, 施設資源을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함.

• 우선 人的資源의 活用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회복지활동에서 專門的이고 實際的인 活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회내 혹은 상위조직에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委員會를 構成하여 自願奉仕者에 대한 敎育 및 管理를 수행하게 함.

• 다음으로는 교회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物的資源의 活用으로 사회봉사에 쓰이는 예산을 定期的인 獻金 및 基金設立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하도록 함.

— 사회복지활동의 진정한 대상은 地域社會住民임.

•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내의 人的·物的 資源의 과감한 開放이 필요함.

•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背景

社會福祉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거나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公共機關과 民間機關의 組織化된 活動을 의미한다(Hefferman, Schuttleworth & Ambrosino, 1992). 산업화가 성숙화 되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민간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충족할 수 없는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 補充的인 役割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서구에서 복지예산의 감축을 초래한 福祉國家의 危機가 도래하자 민간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많은 역할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복지재정이 삭감되어 공공부문에서 복지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하는 福祉多元主義(Welfare Pluralism) 혹은 福祉混合(Welfare Mix)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구와는 약간 다른 이유로 민간의 복지참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식민지, 해방, 전쟁 등으로 인한 빈곤, 고아,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선교단체가 주류를 이루는 외국원조단체(외원단체)의 개입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되었다(최원규, 1996).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1970년대 경제적 부흥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고수하고 민간이 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최근에 이르러서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고,

IMF 經濟危機를 맞게 됨에 따라 福祉欲求는 增大하였으나, 사회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人的·物的 資源의 不足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국방 및 경제성장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 복지 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民間 非營利機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문은 宗教界이다. 비영리기관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Bendick, JR., 1989). 비영리기관에 비해서 영리기관은 복지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中産層을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반면, 비영리기관은 효율성과 그 직접적인 대상자 접근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는 전파 초기부터 社會事業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개항이전 조선시대부터 선교의 목적으로 내한한 기독교 선교단체(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가 경제적 부흥이 있은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서구의 사회사업을 들여왔다(최원규, 1996). 시기별로 외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원규, 1996).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동안에는 이들은 주로 자선사업과 박애사업을 소개하면서 주변적인 사회문제인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복지대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부터 한국전쟁이후에는 시설

구호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사업이 시설중심의 사업으로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에는 전문 사회사업 방법론을 도입하여 실천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외원단체들은 우리 나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고 대신 민간단체들이 이들 대신하였다[1]. 이와 같이 기독교는 한국의 사회복지를 주도하여 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 온 대부분의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사회봉사나 구제를 위해서는 낮은 비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는 사회의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다. 강인철(1996)은 오늘날 종교의 사회적 공신력 정도는 그 종교가 사회복지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회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은 그 외형적 형태는 갖추어져가고 量的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質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組織間의 有機的 關係나 協助體系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활동의 내용과 방법 또한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김인숙 외, 1998).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사회적 측면에서나 교회 측면에서 상당히 큰 상태이다. 한국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노치준, 1995). 그러나 아직도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施設을 중심으로 한 施惠的 次元의 복지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의 양적 팽창에 반해 저조한 사회복지 참여로 사회로부터 공신

1) 그러나 한국의 민간사회사업 기관들은 자생력이 약해서 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정부는 이전에 외원기관이 담당해 왔던 사회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활동은 잔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최원규, 1996).

력을 잃고 있는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교회가 그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노치준, 1995). 개신교 교회는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극빈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계 중에서 개신교 교회의 社會福祉活動의 現況을 파악하고 이를 活性化하기 위한 方案을 연구하고자 한다.

第 2 節 硏究目的 및 內容

우리 나라에는 宗敎人口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7%가 종교인으로 이 중 佛敎가 48.8%, 基督敎가 36.4%, 가톨릭이 11.8%로 전체 종교인구의 97%를 차지한다(통계청, 1998). 종교계는 人的資源, 施設資源, 財政資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는 貧民救濟 및 社會奉仕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기존의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基本的 構造體系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행 복지활동은 전문성 및 체계성이 미흡하고, 보유자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 및 활동 분야에 대한 파악이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계의 福祉活動 實態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支援體系를 構築함으로써 종교계의 福祉參與 活性化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대 종교 중에서 천주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997년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불교계는 현재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유자원은 많으나 복지활동 현황 파악이 미흡한 改新敎 敎

會를 對象으로 복지활동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福祉財政, 社會福祉活動 및 프로그램, 自願奉仕活動, 地域社會와의 關係 등을 파악하여 기독교계의 복지참여 실태에 관한 基礎資料를 생산한다. 둘째, 實態調査 結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의 社會福祉參與 方案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기독교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基盤을 마련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制度的 및 財政的 支援體系를 구축한다.

第 3 節　研究方法

본 연구는 크게 理論的 研究와 實態調査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에서의 민간의 역할과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국내·외의 文獻을 研究하였다. 여기에는 교회의 사회복지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美國教會의 事例가 포함된다.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實態調査를 실시하였다. 한국기독교의 대표적인 7개 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성결교회(예수교 및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합함), 구세군 대한 본영의 교회를 標本抽出하여 교회의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의 母集團은 한국의 기독교 교회 전체로 본 조사에서는 교세가 큰 교단과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을 선정하였다. 이 교단의 교세는 전 교세의 약 50% 차지하고 있다(表 1-1 참조).

총 標本數는 1,531개 교회이고, 구세군 대한 본영을 제외한 6개 교

단의 경우 교세(敎人數)에 비례하여 전체 한국교회 대비 각 교단의 교세 비율을 추계 한 후, 이를 다시 6개 교단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表 1-1 참조). 구세군 대한본영의 경우 전체 교회 대비 구세군의 교세 비중은 0.7%이나, 이를 본 조사에서는 3.3%로 over-sampling 하였다. 그 이유는 구세군이 교세에 비해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1-1〉 敎團別 調査對象 敎會 標本數[1)]

(단위: 개소, %)

교 단	교인수[1)] (교회수)	전교인 대비 비중	표본수	7개교단 대비 비중
①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2,158,597 (5,447)	14.3	428	28.0
②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2,093,967 (5,330)	13.9	415	27.1
③대한기독교장로회	340,590 (1,379)	2.3	70	4.6
④기독교대한감리회	1,277,177 (4,114)	8.5	253	16.5
⑤기독교한국침례회	702,000 (1,800)	4.7	139	9.1
⑥대한성결교회[2)]	884,670 (3,224)	5.9	176	11.5
⑦구세군 대한본영	103,860 (223)	0.7	50	3.3
소 계	7,572,971 (20,698)	50.3	1,531	100.0
기타 교단(조사에서 제외됨)	7,482,638 (27,558)	49.7	-	-
전 체	15,055,609 (48,256)	100.0	1,531	100.0

註: 1) 우리 나라 개신교에는 200여 개가 넘는 교단이 있음. 이 중 교세가 큰 교단이나 복지활동이 활발한 교단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함.
2) 대한성결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와 예수교대한성결교를 합친 것임

資料: 한국 종교사회연구소, 『종교연감』, 1994.

〈表 1-2〉 敎團別 調査對象 敎會 最終標本數 및 應答率

(단위: 개소, %)

교 단	표본수	반송	최종 표본수	응답수	응답률
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428	14	414	99	23.9
②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415	13	402	126	33.3
③ 대한기독교장로회	70	1	69	18	26.1
④ 기독교대한감리회	253	7	246	69	28.0
⑤ 기독교한국침례회	139	11	128	31	24.2
⑥ 대한성결교회	176	4	172	50	29.1
⑦ 구세군 대한본영	50	0	50	17	34.0
전 체	1,531	50	1,481	410	27.6

標本抽出은 7개 교단 교회주소록을 이용하여 교단별로 亂數表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 郵便調査를 실시하였는데, 應答率을 높이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설문을 배포하였고 전화로 독려하여 응답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 대상은 7개 교단의 교회에서 시무하는 擔任牧師이다. 설문지 회수율은 <表 1-2>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평균 27.6%이었다. 7개 교단에 시무하는 1,531명의 목회자 중 50명으로부터는 주소지 불명으로 설문지가 반송되었고, 나머지 1,481명 중에서 410명이 본 조사에 응하였다. 교단별 응답률은 교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과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응답률이 각 23.9%, 24.2%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였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측과 구세군 대한본영의 응답률은 각 33.3%과 34.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단별로 응답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단간의 차이를 도출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목회자들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목회자들로 추정된다. 조사에 응한 목회자와 거부한 목회자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는 의도되지

않았던 조사대상 선정상의 편의(selection bias)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각 교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기독교 교회에 한정하였다. 우리 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불교의 사회복지활동도 함께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나, 연구기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기독교 교회만으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위의 세 종교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을 비교하여 보다 우리 나라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현황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참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및 한계를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민간이 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장으로 민영화의 대두배경, 종류, 우리 나라에서의 민간의 복지참여 등을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민간 중에서도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현황을 우리 나라 3대 종교인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참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사회복지재정비율, 교인의 호응, 교회의 개방여부, 자원봉사관련, 목회자의 사회복지 참여 등의 분석결과를 교단별로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교회단위의 사회복지활동과 함께 지역단위에서의 연계된 교회사회복지활동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전문성과 연계성을 성공적으로 이끈 교회사회복지전문가 고용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실태조사와 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우리 나라 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第 2 章　民間의 社會福祉參與

서구복지국가에서는 경제불황으로 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서 국가의 공공지출 및 역할을 축소하고 市場과 家族 및 非營利機關을 복지의 生産 및 供給主體로 삼는 民營化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복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외환위기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서구에서 전개된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르러서 증폭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자, 비영리기관, 종교기관 등 民間의 福祉參與 活性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서구에서의 민간의 복지참여 배경인 복지국가의 위기와 민영화에 대해서 살펴본 뒤 우리 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第 1 節　福祉國家의 危機

사회복지란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관심을 갖는 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김영모, 1991). 일반적으로 '복지'(well-being)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 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남세진, 1992).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안정된 생활 및 욕구가 충족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가 있

는 것이다. 김영모(1991)는 사회복지의 目的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박애정신, 인도주의, 또는 생존권과 관계되어 살기 좋은 사회, 풍요한 사회 혹은 인간의 基本的인 生活欲求가 充足된 상태라고 하였다.

학자들은 福祉國家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교화 하기 위하여, 개인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다. Wilensky(1975)는 복지국가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최저한의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Hecksher(1984)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을 집합적으로 책임지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내렸다. 아울러 그는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국가이기도 하다고 접근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보다 정교화 하여 Mishra(1990)는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제도화하는 국가라고 정의내렸다.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빈곤, 산업재해, 불평등,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福祉向上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논지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국가란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制度化된 構造를 가지고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經濟的 安全을 보장하고 社會的인 平等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개인은 자생력을 강화할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사고, 질병, 노령 같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는 서구에서 19세기말에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확대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Heclo, 1982). OECD회원국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하였는데 반해, 1975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오히려 支出費用 增加率이 4%로 하락하였다(OECD, 1981). 이러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福祉國家의 危機'라고 부른다(Mishra, 1984; OECD, 1981).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또한 실업률도 낮아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호황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복지국가의 위기'가 대두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 위기와 경제상황의 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가 확대되면 산업생산 부문이 위축되고 노동공급은 감소되며, 저축과 투자도 감소하여 경제상황을 악화시킨다(김태성·성경륭, 1993). 경제가 악화되면 복지에 사용해야 할 수입이 줄어들어 복지지출이 감소하여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김태성·성경륭, 1993). 이를 신보수주의 관점이라고 부른다.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된다. 아를 마르크스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김태성·성경륭, 1993). 자본주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적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당화 기능을 하는데는 비용이 수반되는데, 자본주의가 성숙되면 이러한 비용은 늘어나고 잉여가치는 국

가에 회수되지 않고 소수의 자본가가 소유하게 되어, 정당화를 위한 예산이 적자가 난다. 이러한 적자로 인해서 국가재정은 파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복지국가는 붕괴된다는 것이다(O'Connor, 1973). 복지국가는 경제발전에서 과도기적 국가형태이고, 이는 공산주의로 전환되어 사회의 모순이 없는 유토피아적 사회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모든 사회 성원에게 형평성 있게 복지혜택이 배분되게 된다.

서구의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붕괴되지 않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동유럽,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체계가 와해되고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부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반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불황으로 복지재정의 증가가 둔화에 의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시보수주의적 관점으로 민간의 복지참여를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민간의 사회복지참여와 종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第 2 節 社會福祉의 民營化

1. 民營化의 擡頭

사회복지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서구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보수주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개념이다. Gilbert and Gilbert(1989)는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란 사회복지의 財源, 生産, 傳達過程을 공공부문에서 民間部門으로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Starr(1989)는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廣義의 개념으로 민영화는 국가의 규제와 소비에서의 활동의 축소를 말하고, 狹義의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행정기구나, 국영기업과 독립공공권력체 같은 국가가 소유한 조직을 말한다(Starr, 1989). 민간부문 혹은 사적부문이란 기업체 뿐 아니라 비공식적 가족내 활동, 자발적 결사체, 자조기구, 사적 비영리기구이다(Starr, 1989). 복지의 공급주체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Gilbert, Specht와 Terrell(1993)은 복지의 공급주체를 친족(가족), 종교제도, 경제제도(기업, 노조), 상호부조제도, 정치제도(정부)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데 반해, Johnson(1987)은 비공식부문(가족, 이웃), 자원부문(자조집단, 민간단체), 상업부문(기업), 국가부문(정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재분류하면 복지공동체는 크게 국가부문인 공공부문과, 가족, 이웃, 친구를 포함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란 복지공급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및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복지공급주체가 복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데,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비중이 많은 반면, 북미의 경우는 민간영리부문의 비중이 크다(정경배, 1998).

사회복지의 발달을 볼 때 社會保障體系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부문간에 경쟁적 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이혁구, 1996).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복지의 재원, 생산과 전달을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게 되자 이를 효율성 있는 민간의 역할로 전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영화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의식, 즉, 정부의 성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Starr(1989)는 지적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민간복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供給體系가 多元化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다(정무성, 1998).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여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고, 사회복지부문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이선우, 1998).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로서 제대로 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이선우, 1998).

서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그 현상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서구와 같이 이미 사회복지분야에서 국가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민영화 논쟁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나,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미약한 경우에는 민영화에 관한 논쟁보다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여 복지를 증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절실하다.

2. 民營化의 分類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사회복지의 민영화란 所有權, 財源, 規制, 管理, 供給 機能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유권, 재원, 책임성의 이동 정도에 따라서 민영화의 유형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Starr(1989)는 민영화를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개인적, 가정적, 非公式的 部門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의 自活, 相互扶助, 개인의 선호 등을 가치로 삼는다. 두 번째는 自發的 非營利 혹은 獨立 部門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비공식 부문의 가치를 갖고서 전문적인 指導力과 運營의 장점을 살려서 社會福祉를 傳達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小規模 企業 部門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향후 기대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은 大規模 企業 部門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윤과 전문적인 운영 및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여 사회복지를 운영한다.

Bendick(1989)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소유권과 서비스 전달 책임소재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재정과 서비스 전달역할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역할과중을 덜려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예산삭감, 사용자 요금부담,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 축소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바우처, 계약(contracting out), 보조금지급(grant and subsidies),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한편, Glennerster(김태성·성경륭, 1993)는 사회복지의 給與와 財源을 擔當主體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림 2-1〕 民營化의 分類

<table>
<tr><td></td><td colspan="3">급 여</td></tr>
<tr><td rowspan="3">재원</td><td colspan="2">공 공</td><td>민 간</td></tr>
<tr><td>공공</td><td>공공급여
완전공공재원</td><td rowspan="2">공공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td><td rowspan="2">민간급여
부분공공,
부분민간재원</td><td>민간급여
완전공공재원</td></tr>
<tr><td>민간</td><td>공공급여
완전민간재원</td><td>민간급여
완전민간재원</td></tr>
</table>

資料: Glennerster, H., *Paying For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p.5(김태성·성경륭, 1993, p.270. 재인용).

사회복지의 급여가 공공이고 재원도 공공이면 공공급여-완전공공재원의 형태를 띠고, 급여가 공공이고 재원은 민간이면 공공급여-완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한편, 급여는 공공인데 재원이 공공과 민간의 합작이면 공공급여-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반대로, 사회복지의 급여가 민간이고 재원은 공공이면 민간급여-완전공공재원의 형태를 띠고, 급여가 민간이고 재원도 민간이면 민간급여-완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급여는 민간인데 재원이 민간과 공공 합작이면 민간급여-부분공공-부분민간재원의 형태를 띤다.

오늘날에 있어서 순수한 공공이나 민간은 드물고, '運營은 民間, 財源은 政府'의 형태를 띤 것이 대부분이다(김태성·성경륭, 1993). 즉, 민영화에 있어서 정부의 운영활동은 축소하고, 재정이나 정부활동 자체는 감소되지 않는다(Starr, 1989). 왜냐하면 민간이 복지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도 재정의 책임은 국가 맡으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이 맡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선우, 1998). 미국은 공공영역에 의존하는 것을 기피하여 정부가 아닌 자원봉사나 지역의 자조집단에 의해서 사회문제

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유럽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켜왔다(Bendick, 1989).

3. 社會福祉서비스에서의 民營化 類型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민영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이다. 민영화 중에서도 재원은 정부가 담당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서비스 購買, 補助金 支給, 交換權 支給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서비스 購買(Contracting Out)

국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법은 민간부문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이선우, 1996). 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민간기구간의 경쟁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민간기구는 관료주의나 다른 형식이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Bendick, 1989). 또한 고용, 실직, 보상, 동기화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융통성이 많다(Bendick, 1989).

2) 補助金(Grants and Subsidies)

이는 민영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이선우, 1996).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민간기업에 종업원의 임금을 보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한 지역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세금 감면, 지불연기(moratorium), 신용부여,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등이 이에 속한다(Bendick, 1989).

3) 交換權(Vouchers)

바우처는 개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도록 하는 수입이전이다(Bendick, 1989). 수혜자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바우처의 예로 식권, 주택의 임대료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의료보험, 의료보호도 일종의 바우처이다.

4. 民營化의 必要性

이러한 민영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되고 있다(Starr, 1989). 첫째, 정부에 의한 공공의 복지제공보다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자유로운 市場經濟에 기반한 福祉提供이 더 효율적이다. 둘째, 민영화는 지역사회의 조직, 교회, 자조집단(self-help group) 등 非公式的 制度를 活性化시킴으로써 地域社會를 강화시킨다. 셋째, 민영화는 과중한 정부의 역할을 덜 수 있다.

1) 民間部門(市場)의 效率性

작은 정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 아래, 민간이 복지의 상당부분을 전달했을 때 더 효율성이 증대한다는 주장이다.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기반하였을 때 개인의 選擇의 폭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전달은 더 효율적이고 더 온정적,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관료주의 없이 운영의 기술을 살려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때 자원봉사자들과 기부된 물품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地域社會 强化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위치한 媒介組織, 즉, 자발적 결사체, 공동체 조직, 교회, 자조 집단 및 비공식적 조직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地域社會 共同體가 강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러한 매개조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3) 國家의 役割負擔 緩和(Load-Shedding)

민영화는 국가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이 과도할 때,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民營化의 限界

민영화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등을 극복하고 보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복지를 전달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社會福祉 재원마련 및 傳達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Brodkin and Young, 1989).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財源을 調達하기 쉽지 않다. 비영리기관들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博愛의 特殊主義로 욕구와 자원이 서로

다른 여러 지역에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분열된다(Salamon, 1985). 따라서 이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장점인 효율성은 떨어지고 복지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약화된다(Brodkin and Young, 1989). 이러한 이유로 재원조달, 규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Brodkin and Young, 1989).

비영리부문은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欲求와 資源을 적절히 連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대항하여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Brodkin and Young, 1989). 정부는 불황기에 지출을 증대시키고 호황기에 자원을 저축하며, 부유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기관은 이러한 일을 하기 어렵다. 특히 주로 빈곤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축소할 때 수입과 부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한다고 지적되고 있다(Brodkin and Young, 1989).

비영리조직도 순수한 公共財 또는 集合 利益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Brodkin and Young, 1989). 비영리조직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품질과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間接所得을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서 비영리조직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비영리조직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느슨해지고 태만해지고 원래의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 예를 들면 組織의 維持 등을 더 중시하게 된다(Brodkin and Young, 1989).

종합하면, 비영리기관이 사회복지를 전달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감독하에 민간, 특히 비영리기관이 사회복지를 전달하게 되면 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복지전달이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선우, 1998).

第 3 節 우리 나라 社會福祉에서 民間의 役割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의 福祉參與의 歷史를 백종만(1996)은 세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해방이후 외원기관의 응급구호와 민간에 의존한 잔여적 복지시기로 1945년에서 1960년간의 시기이다. 제2기는 자유주의적 국가복지와 가족보호 우선의 잔여적 복지시기로 1960년대 초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이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987년 이후로 시장순응적 통합국가복지와 민간활동의 다원주의 복지시기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시작되면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문민정부는 한국형 福祉模型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시장이념과 비시장이념의 조화,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균형 추구,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는 복지모형을 강조하였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한국형 복지모형이란 均衡的 福祉國家를 이룩하는 것을 기조로 균형적 복지란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전통의 융화, 생산적·예방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福祉共同體를 구축토록 했다[2](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문민정부는 “복지에의 시장원리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복지의 책임을 국가로부터 가족, 기업, 종교단체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복지다원론을 도입”하였다(조흥식, 1998a).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에서 受益者負擔의 원칙을 중시하고, 수혜자가 기여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민간부문으로 복지책임을 이전하는 등 서구의 보수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입장을

2) 이 밖에 중앙정부의 복지기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해 복지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1997).

취한다(최균, 1995). 민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國家-市場-市民社會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오정수, 1998).

즉, 문민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도입하였다(이선우, 1998). 이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가족, 기업,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이선우, 1998).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사회복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국가의 힘만으로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시 복지 욕구가 증대하여 복지의 총량이 증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 기여의 한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은 국가의 복지에의 기여가 약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복지에 기여하여 왔다(오정수, 1998). 우리 나라에서 민간은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리하여 왔다(백종만, 1995). 그러나 민간부문은 자율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열악한 재정상태와 낮은 보수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백종만, 1995).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보다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에만 치중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백종만, 1995).

우리 나라의 민간복지기구로는 각 종교기관, 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인력은행 등을 들 수 있다(권순원, 1998). 이들은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救貧 또는 慈善活動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권순원, 1998). 그런데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국가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이 미비하고 민간은 자율성, 전문성, 체계성을 갖고 복지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오정수, 1998). 오정수(1998)는 우리 나라의 민간사회복지가 해방과 6·25,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민간복지는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오정수, 1998). 첫째, 組織의 體系性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중복하여 공급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둘째, 專門人力 및 財政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민간부문이 전문성의 미비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機關間의 連繫가 미흡하고, 기관들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게 편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거나 自律性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중간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오정수, 1998).

第 4 節　小結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이선우, 1998). 민간으로의 복지전이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살펴본 민영화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은 점차로 줄어들고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고 민간은 補完的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에 대해 인센티브 구조를 개발하여 부족한 공공예산문제를 민간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권순원, 1998). 정경배(1998)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여부로 전국민에게 필요한 욕구는 정부가 담당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위급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개인적 기호와 관련된 것이면 민간이 담당한다. 셋째, 대응의 긴급성 여부로 보아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민첩하지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복지를 공급한다. 넷째, 서비스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항상 필요한 상설적 서비스이면 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조직이 담당한다. 다섯째, 기획성과 집행성을 고려하여 사회파급 효과가 크고 기획력과 강제적 집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쉽고 집행이 단순한 부문은 민간이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크기를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자발적 지원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원에 동원할 수 있으면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社會保險制度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基礎醫療保障, 基礎所得保障, 基礎敎育保障, 基礎住居保障 등을 담당해야 하고(정경배, 1998), 민간은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자, 노인 등 脆弱階層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보완적인 복지기능을 담당하여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형 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정무성, 1998). 그 결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정무성,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와 경제·사회적 위기는 민간의 복지에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한다.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비영리기관과 같은 매개조직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公共과 民間의 均衡을 유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목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기구 중의 하나인 종교기관도 국가가 신속하게 담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 및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종교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사회복지활동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및 복지욕구 파악, 사회복지활동 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때 보다 활발하게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향후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종교계는 점차적으로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나라 종교계의 전반적인 사회복지활동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 3 章　宗教界의 社會福祉參與

第 1 節　宗教의 社會的 機能과 逆機能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다. 우리 나라의 宗教人口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인구 중 각 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佛教가 48.8%, 改新教가 36.4%, 가톨릭이 11.8%이다(통계청, 1998). 이 통계에 의하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전체 종교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종교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는 상기한 3대 종교만의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천주교는 200년, 개신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 세 종교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합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원규(1996b)에 의하면, 종교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社會的 機能을 수행한다고 한다. 첫째는 社會統合(social integration)의 기능이다. 특히 뒤르껭의 사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이 기능은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 의식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교는 믿음과 가치들에 대한 권위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다양한 인간의 의견과 견해들 사이의 갈등과 모호성 가운데서 확립된 준거점을 마련해 줌으로 統合과 一致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현상 유지에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기능은 공통된 믿음과 가치를 심어줌으로 集團의 結束과 共同體性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베버(Weber)가 말한 사제적 기능과 같다.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시대의 불교가 이런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과연 종교가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나, 사회의 현존하는 정치, 경제, 사회질서와 문화적 전통을 뒷받침해주는 보수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社會變形(social transformation) 혹은 社會變動(social change)의 기능이다. 이것은 의도적이던 아니던 종교가 사회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는 때때로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초래하여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기독교가 근대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과 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나 우리 나라에 전래된 이래 특히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사회변형의 중요한 동기는 종교가 수행하는 社會批判 기능이다. 종교는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면서 사회변혁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베버가 명명한 이래로 종교의 豫言的 기능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의 예언적 기능은 흔히 확립되어 있는 질서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저항의 한 근원이 되고 있다. 베버는 그 예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서 찾고 있지만, 유신시대 이래 우리의 사회정의 문제를 부각시켜온 정의사회 구현사제단이나 도시산업선교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셋째는 社會統制(social control)의 기능이다. 기성 사회의 규범들과 가치들을 강조하여 개인적인 소망보다는 집단 목표의 우월성을, 개인적 충동보다는 집단적 훈련의 우월성을 유지하게 한다. 특히 집단적인 목표와 이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표와 이상을 통제하며 여기에서 일탈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제재를 가하고 또 개인들의 이기

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종교는 각종 범죄와 부도덕 행위를 신앙적으로 통제함으로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힘이 될 수 있으며 한 사회가 도덕적 사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O'Dea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 긍정적 역할과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否定的, 혹은 逆機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이원규, 1996b에서 재인용).

사회통합의 기능에 있어서 종교가 지나치게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현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호응과 적응을 강요함으로, 때때로 생겨날 수 있는 정치적 부패와 타락,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까지도 동조하거나 방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독재정권을 비호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 교회나 히틀러에 동조했던 독일교회들이 그 실례가 될 것이다.

한편 사회변형에 있어서는 예언적 기능의 경우 때때로 그 예언자적 요구가 너무 유토피아적이어서 보다 실제적인 행동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신의 뜻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타협을 통한 조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주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의 예언적 기능은 葛藤을 부채질하고, 그리하여 社會 解體와 混亂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폭력으로 체제를 전복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급진 기독교 운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 기능의 경우 종교가 전통적인 사회규범과 가치를 도덕성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지나치게 되면,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욕구를 억압함으로서 종교가 社會變動의 한 障碍要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변화되는 사회 상황에의 적응능력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결과가 생

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第 2 節　우리 나라 宗教의 否定的 樣相

우리 나라에서도 종교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부정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조흥식(1998b)에 의하면 첫째, 우리 나라의 종교는 祈福信仰的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이러한 종교에서 개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축복문제에만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회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종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없게 된다.

둘째, 保守主義 傳統이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과 권위를 중히 여기며,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변화의 기능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셋째, 教勢 成長主義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속한 교파의 성장과 확장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웃의 문제나 사회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넷째, 소외계층과 거리를 두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종교가 中産層化 되고 貴族化 되면서 사회적 공헌을 하지 못하는 종교의 모습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脫歷史的 성격을 갖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성의 결핍은 의식이 있는 중산층, 교육받은 엘리트층, 변화지향적인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된다.

第 3 節 3大 宗教의 社會福祉 參與 實態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욕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부문, 특히 종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종교계가 사회복지계에 미친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 공식 社會福祉施設의 절대다수가 종교와 관련된 운영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김홍권(1997, 김인숙, 1998에서 재인용)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법인 중에서 기독교가 운영하는 기관이 461개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 112개, 불교 37개이었다(表 3-1 참조). 그러나 법인이외에 비법인를 합하면 기독교 예장 195개, 가톨릭 561개, 불교 268개나 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종교계는 활발하게 사회복지에 참여하게 되었다(김인숙, 1998). 즉, 종교계는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복지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인숙, 1998).

〈表 3-1〉 宗教界 社會福祉機關·施設 運營 實態

(단위: 개소, %)

구분	사회복지시설 법인수	법인과 비법인 포함	종교인구수 비율
기독교	461	195[1)]	36.4
가톨릭	112	561	11.8
불교	37	268	48.8

註: 1) 예장통합만의 수치임.

資料: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98 겨울호, p.57.

3대 종교 중 天主敎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社會福祉委員會에서 1997년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였고, 1996년에 이어 1999년에도 天主敎社會福祉便覽을 발간해서 천주교의 사회복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佛敎界 역시 그 동안의 불교계의 복지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교계의 복지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불교의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실천체계 확립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활동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1999년 1월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동년 11월에 무려 1,000쪽이 넘는 韓國佛敎社會福祉總攬을 발간했다. 한국의 改新敎會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아직까지 선교와 사회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하여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교회가 성장에 걸맞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의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로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개신교는 1989년에 전국의 1,000개 교회(가톨릭 교회 100개 포함)의 목회자와 신도 대표 2,000명을 대상으로 韓國敎會 社會奉仕事業에 관한 조사연구(성광문화사, 1990)를 시행하였으며 1994년에는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社會奉仕總攬(대한예수교장로회, 1994)을 제작하였고, 1999년에는 다시 교단 산하 전국교회 목회자의 사회봉사 의식과 사회봉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자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회봉사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3].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997년에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신앙고백 차원에서 교회의 사회봉사에 관한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구조는 갖추었으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사업 현황조사』, 1999년 12월경 출간예정임.

나, 사회복지활동의 실제에 있어 專門性, 保有資源의 정확한 규모나 활동분야에 대한 파악, 활동에 필요한 弘報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傳達體系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종교계가 그 동안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활발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종교계의 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교계의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잠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이 되면서도 복지활동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고 있는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복지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여겨진다.

第 4 節 宗敎界 社會福祉活動의 問題點

최근 3대 종교는 그 동안의 종교 사회복지활동을 반성하고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의 사회복지활동이 專門性을 갖추고 있는지, 다른 민간분야의 사회복지활동과 비교할 때 效果性은 있는지 등에 관한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는 주로 그들의 신도수에 비해서 복지활동이 활발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비해 불교가 사회복지 분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이유로 임송산은 관심과 추진력을 가진 승려의 부족, 기성 불교 지도자 전체의 무관심, 종단 총무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다(정무성, 1999에서 재인용). 게다가 불교의 사회복지활동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물론이고 지원체계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불교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관계나 협조체계

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불교 사회복지의 활동에 대한 내용과 방법 면에서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임을 토로하면서 불교 사회복지도 사회변동의 추세에 따라 종래의 자선사업적 성향이나 서구 사회복지의 일률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불교적 이념에 입각한 독자적인 사회복지의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권경임, 1999).

천주교는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사회적 측면이나 교회적 측면에서 매우 큰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시설을 중심으로 한 施惠的 次元의 복지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은 갖추었고 활동도 양적인 면에서는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에서 조직간의 유기적 관계나 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되지 못하였고 사회복지활동의 내용과 방법 또한 전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반성하는 시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김인숙 외, 1997).

개신교 대표 교단의 하나인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박창빈(1992) 사회부 총무는 동 교단의 사회봉사의 문제점 여섯 가지를 거론하고 그 중의 하나로 個教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교회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意識, 사회봉사에 대한 예산배정을 포함한 교회의 財政構造 문제, 教會施設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정무성(1999)이 한국 종교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豫算編成의 소극성, 사업의 非專門性, 傳達體系의 비체계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원규(1996c)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構造的 要因들에 관하여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개인구원적 신앙이 강했다. 이러한 신앙태도는 반사회적, 탈역사적 세계관을 만들어 내며 사회구원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둘째, 한국 교회에서는 그 동안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주로 수직적 신앙(vertical faith)인 절대자와 개인의 관계만 강조되어 왔지 수평적 신앙(horizontal faith)인 이웃과의 관계는 무시되어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인들의 믿음은 수평적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즉,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실 맺지 못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셋째, 한국 교회는 그 동안 선교를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전도의 성과는 매우 컸지만 이웃을 돌보는 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복지, 인권, 봉사의 차원이 소홀히 취급되었던 것이다.

넷째, 교회의 개(個)교회주의는 교회의 사회봉사를 막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소이다. 한국 교회는 인적·물적자원을 개체교회 발전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따라서 사회봉사와 같은 사회적 역할수행은 등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든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의식이나 여유를 모두 빼앗아가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상기한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기독교 7개 교단의 福祉財政, 社會福祉活動 및 프로그램, 自願奉仕活動, 地域社會와의 關係 등을 파악하여 종교계의 복지참여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방안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화하며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기독교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보에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第 4 章　韓國敎會의 社會福祉活動 實態

본 연구는 기독교 7개 교단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실태를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교회의 본질적인 使命, 사회복지활동의 活潑性, 社會福祉活動 및 프로그램, 社會福祉專門家 유무, 社會福祉財政, 自願奉仕活動, 地域社會와의 關係, 사회복지활동상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認識 및 態度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에서는 항목별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第 1 節　調査對象 敎會 및 牧會者의 特性

1. 敎會 特性

조사대상교회의 一般的 特性이 <表 4-1>에 제시되어 있다. 교회의 位置에서 있어서는 조사대상 교회들은 대도시와 중도시, 군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군지역의 교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교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어·광업지역 등이었다. 소수의 교회만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교회가 소재한 지역주민의 社會經濟的 특성은 중하층이 가장 많았고, 하층, 중상층의 순이었다. 상층지역에 소재한 교회는 전체의 1.2%(5개 교회)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表 4-1〉 調査對象 敎會 特性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 분 율
교회위치		
대도시(특별시·광역시)	133	32.4
중도시(시지역)	105	25.6
군지역(군·읍·면지역)	172	42.0
전 체	410	100.0
지역적 특성		
주거지역	161	39.4
상업지역	26	6.4
공업지역	6	1.5
농·어·광업지역	136	33.2
혼합지역	80	19.5
전 체	409	100.0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상층	5	1.2
중상층	50	12.2
중하층	261	63.8
하층	93	22.8
전 체	409	100.0
교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99	24.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26	30.7
한국기독교장로회	18	4.4
기독교대한감리회	69	16.8
기독교한국침례회	31	7.6
대한성결교회	50	12.2
구세군 한국본영	17	4.1
전 체	410	100.0
교회 출석교인수		
50명 이하	184	45.4
51~ 100명	80	19.8
101~ 300명	71	17.5
301~ 500명	39	9.6
501~1,000명	18	4.5
1,001~2,000명	8	2.0
2,000명 이상	5	1.2
전 체	405	100.0

敎派별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하 예장 통합)이 30.7%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하 예장 합동)이 24.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대한성결교회(이하 성결교),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침례교),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구세군 한국본영(이하 구세군)의 순이었다.

교회의 出席敎人數별로는 50명 이하의 교회가 45.4%로 가장 많았고, 51명에서 100명 이하의 교회가 19.8%, 101명에서 300명 이하의 교회가 17.5%, 301명에서 500명 이하의 교회가 9.6%였다. 출석교인이 500명 이상인 교회는 7.7%에 불과하다. 즉, 전체의 65.2%에 해당하는 교회는 출석교인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였다.

2. 牧會者 特性

<表 4-2>와 <表 4-3>에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性別을 보면 남자가 96.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자는 3.2%에 불과하였다. 年齡平均은 47.1세(표준편차 9.73)로 나타났으며, 40대가 37.3%로 가장 많았다. 50대도 24.1%로 나타났으며, 30대가 23.4%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교회에서의 職分을 보면 목사인 경우가 90.2%이었으며,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9.1%로 나타났다. 最終學歷은 신학대학원 석사/박사가 82.5%로 가장 많았다.

〈表 4-2〉 調査對象 牧會者의 特性(1)

(단위: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전 체	406	100.0
성별		
남자	393	96.8
여자	13	3.2
연령별		
20대	5	1.2
30대	95	23.4
40대	151	37.3
50대	98	24.1
60대 이상	57	14.0
직분별		
목사	365	90.2
부목사/전도사	37	9.1
장로	1	0.2
권사	2	0.5
학력별		
신학대학원(석/박사)	350	82.5
일반대학원(석/박사)	19	4.5
특수대학원(석사)	11	2.6
기타	44	10.4

<表 4-3>에 제시되었듯이 목사안수를 받은 연수를 살펴보면 평균 12.42년(표준편차 8.89)으로 나타났으며, 6년에서 10년 이하가 25.4%, 5년 이하가 24.6%, 11년에서 15년 이하가 21.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회에 부임한 평균연수는 8.23년(표준편차 8.15)이었으며, 3년에서 5년 이하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6년에서 10년이 26.1%, 11년에서 15년 이하가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4-3〉 調査對象 牧會者의 特性(2)

(단위: 명, %)

구 분	빈도	백분율
목사안수 년수		
5년 이하	92	24.6
6~10년	95	25.4
11~15년	79	21.1
16~20년	43	11.5
21~30년	44	11.8
31년 이상	21	5.6
전 체	374	100.0
부임연수		
2년 이하	23	5.7
3~5년	165	40.6
6~10년	106	26.1
11~15년	59	14.5
16~20년	27	6.7
21~30년	20	4.9
31년 이상	6	1.5
전 체	406	100.0
학부출신대학		
일반대학	61	15.3
신학대학	328	82.4
기 타	9	2.3
전 체	398	100.0
일반대학 학사 전공		
인문학	19	28.8
사회과학	28	42.4
자연과학/공학	9	13.6
기 타	10	15.2
전 체	66	100.0

목회자의 학부전공은 신학을 전공한 경우가 82.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대학이 15.3%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사회과학분야가 42.4%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학이 28.8%, 자연과학 및 공학이 13.6% 등으로 나타났다.

第 2 節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現況

1. 敎會의 使命

기독교에서 봉사는 기본 사명 중의 하나이다. 교회는 예배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개인, 가족, 민간단체, 국가가 기여하지 못하는 부문에서 소외되는 대상을 향해서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救濟와 社會奉仕를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85.9%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14.1%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表 4-4 참조).

〈表 4-4〉 敎會의 社會奉仕 使命에 대한 見解[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동의	81.8	92.6	83.3	83.8	77.4	81.6	-	85.9
동의안함	18.2	7.4	16.7	16.2	22.6	18.4	100.0	14.1
계	100.0 (99)	100.0 (122)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49)	100.0 (17)	100.0 (404)

註: 1) χ^2=11.616, p=.071

이러한 결과는 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장 통합측이 다른 교파보다 사회봉사 사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구세군은 목회자 전부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구세군 목회자는 교회의 기본사명이 사회봉사가 아니라 선교라고 보고 있다. 선교에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나뉘는데, 사회봉사는 공 사회구원의 일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세군이 사회봉사를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보지는 않고 선교를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

만, 선교라는 개념 속에 사회봉사가 일부 포함된다. 즉, 구세군은 사회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세군 목회자 전부는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부분 교단의 목회자는 구제와 사회봉사를 교회가 담당해야 할 기본사명으로 보고 있었으나, 구세군 목회자들은 구제나 사회봉사보다는 전도와 복음전파 등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敎會의 社會福祉活動 參與率

우리 나라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가를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활발하다는 응답은 15.2%에 불과하였고, 57.2%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었다(表 4-5 참조). 즉, 교회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當爲性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이 현실적으로 실천되는 율은 저조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율에 있어서 교단간에 비슷한 추세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었다.

〈表 4-5〉 우리 나라 敎會의 地域社會福祉活動에 대한 見解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저조	13.1	4.1	22.2	10.3	6.5	10.0	29.4	10.1
저조한 편	44.5	46.3	72.2	41.2	48.3	52.0	47.1	47.1
그저그렇다	28.3	32.5	5.6	29.4	25.8	22.0	23.5	27.6
활발한 편	14.1	16.3	-	19.1	19.4	16.0	-	15.0
매우 활발	-	0.8	-	-	-	-	-	0.2
계	100.0 (99)	100.0 (123)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50)	100.0 (17)	100.0 (406)

註: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검증을 하지 않았음.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소속한 교회의 社會福祉參與 活潑性에 대해 조사한 결과 22.0%의 목회자들이 소속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하여, 일반 한국 교회보다는 조사에 응한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보고 있었다(表 4-6 참조). 그러나 여전히 반수에 해당하는 55.3%의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의 참여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교단간의 사회복지활동 참여상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구세군과 감리교가 다른 교단에 비해 소속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 참여가 활발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장과 침례교는 상대적으로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 所屬敎會의 地域社會福祉活動에 대한 見解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저조	18.2	16.4	22.2	10.3	9.7	24.0	-	15.8 (64)
저조한 편	39.3	44.2	38.9	29.4	48.4	40.0	29.4	39.5(160)
그저그렇다	27.3	19.7	27.8	23.5	25.8	14.0	29.4	22.7 (92)
활발한 편	15.2	17.2	11.1	33.9	16.1	20.0	41.2	20.5 (83)
매우 활발	-	2.5	-	2.9	-	2.0	-	1.5 (6)
계	100.0 (99)	100.0 (122)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50)	100.0 (17)	100.0 (405)

註: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검증을 하지 않았음.

3. 社會福祉프로그램의 利用者

교회들이 실시하는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의 利用對象者는 교인 중심인지 아니면 지역주민 중심인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2%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라고 응답하여 교회가 地域社會住民들을 中心으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4-7 참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기독교 교인에만 한정한 교회는 응답자의 15.8%에 불과하였다.

교단별로는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구세군의 경우는 응답교회 전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다른 교단들도 70% 이상이 기독교 교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表 4-7〉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 프로그램의 利用者[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교인만	17.0	11.8	27.3	16.3	9.5	29.0	-	15.8 (39)
주민누구나	83.0	88.2	72.7	83.7	90.5	71.0	100.0	84.2(208)
계	100.0 (47)	100.0 (76)	100.0 (11)	100.0 (49)	100.0 (21)	100.0 (31)	100.0 (12)	100.0 (247)

註: 1) χ^2=9.005, p=.173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利用程度는 전체 이용자의 40%에서 59%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고(31.3%), 전체 이용자의 20% 내지 39%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表 4-8 참조). 지역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되는 경우도 31.9%나 되어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8〉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地域住民의 利用 比率[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20% 미만	4.5	6.9	9.1	10.0	10.5	13.3	-	8.0(18)
20~39%	27.3	31.9	27.3	27.5	42.1	23.3	10.0	28.8(65)
40~59%	22.7	33.4	45.4	30.0	26.3	33.4	50.0	31.3(71)
60~79%	11.4	15.3	9.1	20.0	15.8	13.3	30.0	15.5(35)
80% 이상	34.1	12.5	9.1	12.5	5.3	16.7	10.0	16.4(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226)

註: 1) χ^2=23.433, p=.494

교단별로는 地域住民의 參與率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社會福祉 專門家

1)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專門人力이 필요하다. 조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인 91.9%의 교회가 복지 전문가가 없었다(表 4-9 참조). 교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表 4-9〉 敎會의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있다	2.2	8.3	18.8	12.1	6.7	6.3	20.0	8.1
없다	97.8	91.7	81.2	87.9	93.3	93.7	80.0	91.9
계	100.0 (90)	100.0 (120)	100.0 (16)	100.0 (66)	100.0 (30)	100.0 (48)	100.0 (15)	100.0 (385)

註: 1) χ^2=11.274, p=.080

그렇다면 전문 사회복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주로 누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9.0%가 牧會者라고 지적하였다(表 4-10 참조). 그 다음으로는 宣敎會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고(18.5%), 사회복지분과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비율은 10.3%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밖에 一般敎人들도 소규모이지만(7.2%) 복지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이 목회자나 선교회, 평신도 등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목회자들 중에서 28명만이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과학을 전공한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表 4-3 참조). 교단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 4-10〉 所屬敎會 社會福祉活動의 主擔當者[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목회자	61.8	55.5	46.7	47.0	72.4	71.8	70.5	59.0
사회복지분과	11.1	5.6	20.0	9.1	-	6.5	-	7.5
복지전문가	2.5	1.9	6.7	3.0	6.9	2.2	-	2.8
선교회	12.3	21.3	13.3	30.3	13.8	13.0	11.8	18.5
일반교인	8.6	8.3	13.3	4.5	-	6.5	11.8	7.2
기타	3.7	7.4	-	6.1	6.9	-	5.9	5.0
계	100.0 (81)	100.0 (108)	100.0 (15)	100.0 (66)	100.0 (29)	100.0 (46)	100.0 (17)	100.0 (362)

註: χ^2=35.487, p=.225

2) 有給 社會福祉 專門家 必要性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사업에서 유급 사회복지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조사대상 목회자의 48.6%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表 4-11 참조). 반면 유급 사회

복지 전문가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30.7%나 되었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20.7%나 되어 과반수 이상의 목회자가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이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단별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장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다른 교단들은 사회복지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수에 못미치는 목회자만이 사회복지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필요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表 4-11〉 社會福祉事業 專擔有給 社會福祉專門家의 必要性[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필요	4.6	9.6	-	9.2	3.3	4.5	20.0	7.3 (27)
필요하다	46.0	36.5	74.9	41.6	46.7	34.2	26.7	41.3(154)
그저그렇다	18.4	27.8	6.3	12.3	16.7	27.3	20.0	20.7 (77)
필요없다	27.6	20.0	18.8	35.4	30.0	29.5	33.3	26.9(100)
전혀 불필요	3.4	6.1	-	1.5	3.3	4.5	-	3.8 (14)
계	100.0 (87)	100.0 (115)	100.0 (16)	100.0 (65)	100.0 (30)	100.0 (44)	100.0 (15)	100.0 (372)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5. 敎會에서 運營·實施하는 分野別 社會福祉施設 및 프로그램

1) 所屬敎會 社會福祉施設 運營 分野

응답 교회들이 운영하는 社會福祉施設이 <表 4-12>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소수의 교회만이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교회의 23% 이하만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兒童福祉施設로 전체의 23.2%의

교회가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表 4-12〉 所屬敎會 社會福祉施設 運營 分野[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아동복지시설	23.2	19.8	22.2	34.8	29.0	14.0	17.6	23.2(95)
청소년복지시설	7.1	5.6	-	8.7	6.5	8.0	29.4	7.6(31)
노인복지시설	7.1	8.7	27.8	14.5	16.1	8.0	17.6	11.0(45)
장애인복지시설	5.1	-	11.1	1.4	3.2	2.0	-	2.4(10)
여성복지시설	2.0	1.6	-	2.9	-	2.0	5.9	2.0 (8)
부랑인복지시설	2.0	1.6	-	-	6.5	2.0	-	1.7 (7)
사회복지관	2.0	1.6	-	4.3	-	-	-	1.7 (7)
기타	13.1	14.3	11.1	15.9	6.5	14.0	17.6	13.7(56)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검증을 하지 않았음.

그 다음은 老人福祉施設로 11.0%의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다. 青少年福祉施設은 7.6%의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히 구세군의 경우는 다른 교단보다 청소년 대상의 복시시설을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밖에 障碍人福祉施設 2.4%, 女性福祉施設 2.0%, 浮浪人福祉施設 1.7%, 社會福祉關 1.7% 등으로 나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기장의 경우 다른 교단보다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박종삼(1992)은 우리 나라 사회사업기관의 90%가 기독교인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교회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施設 및 프로그램

다음에는 교회들이 운영하는 對象別 社會福祉 프로그램을 살펴보았

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실직자 및 노숙자, 지역주민 등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각 시설 및 프로그램의 수혜자수와, 자원봉사자수, 그리고 유급직원수를 알아보았다.

(1) 兒童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조사대상 교회의 15% 미만으로 나타나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表 4-13 참조). 가장 참여가 높은 시설은 어린이宣敎院이었고,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兒童保護施設 訪問 및 支援 있었다. 이 밖에 공부방 개설, 어린이집, 탁아소 운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인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자는 적게는 평균 2명에서 많게는 평균 37명 정도로 조사되었다. 유급직원수는 어린이집 및 탁아소가 가장 많은 평균 6.66명이었고, 나머지는 비교적 유급직원수가 적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表 4-13〉 兒童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시설					
어린이 선교원	14.1	52.50	14.06	36.73	3.53
유아원, 유치원	4.1	54.69	10.88	12.20	4.00
아동보호시설운영	2.4	44.00	2.75	2.00	3.00
어린이집, 탁아소	8.8	68.67	7.53	16.91	6.66
프로그램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	13.7	45.27	10.24	16.67	1.25
입양과 결연	4.1	10.75	22.50	2.00	-
공부방	12.4	21.91	5.77	6.75	4.29
기 타	8.0	37.89	7.63	7.00	0.50

(2) 靑少年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로서는 讀書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조사대상 교회의 7.1%로 조사되었다(表 4-14 참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奬學事業으로 45.9%의 교회가 실시하고 있었고, 다음은 소년소녀가장돕기(33.4%), 청소년 상담(23.4%), 청소년 선도(16.8%), 문화활동(10.5%)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아동대상 활동보다는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수혜인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여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0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평균수는 5명에서 19명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교회교인이 일반인보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급직원수는 평균 1명에서 2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4-14〉 靑少年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	수혜인원 (명)	자원봉사자(명) 교회교인	자원봉사자(명) 일반인	유급직원 (명)
시설					
독서실 운영	7.1	36.26	10.45	12.50	1.25
프로그램					
장학사업	45.9	7.53	9.51	3.00	1.67
소년소녀가장돕기	33.4	5.09	18.50	7.17	1.86
청소년 상담	23.4	34.26	5.68	3.25	1.11
청소년 선도	16.8	64.93	7.74	11.00	2.29
야학 운영	2.4	14.50	4.75	6.00	1.00
직업알선	4.1	10.80	11.00	6.00	1.00
문화활동	10.5	206.00	13.19	11.50	1.00
기 타	2.9	89.13	5.00	-	1.00

(3) 老人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은 다음 <表 4-15>와 같이 나타났다. 노인 대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는 老人大學 6.6%, 양로원 2.0%, 노인정 1.0%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養老院 訪問 32.7%, 경로잔치 32.2%, 노력봉사 20.2%, 무료식사제공 15.4%로 어느 정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혜인원도 매우 많아 경로잔치의 경우는 102명이나 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교회교인보다는 일반인수가 더 많았다. 즉, 지역주민들도 교회가 실시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자원봉사자로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15〉 老人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시설					
노인정 운영	1.0	5.00	-	-	-
노인대학 운영	6.6	83.48	18.94	57.75	12.75
양로원 운영	2.0	18.43	5.25	50.00	3.67
프로그램					
양로원 방문	32.7	44.86	13.52	28.13	1.00
불우노인 무료식사 제공	15.4	92.66	14.56	13.00	2.75
경로잔치	32.2	102.24	19.83	55.53	20.50
취업 및 부업알선	1.5	3.50	-	1.00	1.00
노력봉사	20.2	27.73	9.15	59.17	2.00
도시락, 반찬 배달	8.0	15.15	6.86	10.00	2.33
기 타	7.6	19.83	7.00	1.50	0.60

(4) 障碍人 對象 프로그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勞力奉仕 18.0%, 가정상담 12.7%, 수술비 보조 7.6% 등으로 교회에서조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은 미약하다(表 4-16 참조).

그러나 이러한 미약한 프로그램이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평균 5명에서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수는 상당히 많아 교인의 경우 3명에서 8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일반인의 경우는 1명에서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유급직원수는 매우 적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교회의 지원이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表 4-16〉 障碍人 對象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수술비 보조	7.6	8.18	49.43	-	-
취업안선 및 지원	3.9	5.13	3.33	1.00	1.00
보장구 지원	5.1	4.67	81.75	20.00	1.00
가정상담	12.7	23.55	6.10	150.67	1.00
노력봉사	18.0	34.31	15.55	52.00	0.50
기 타	6.1	14.69	3.78	22.50	1.00

(5) 女性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교회가 운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로는 母子院이 가장 많은 32.4%였고, 미혼모시설은 0.2%에 불과하였다(表 4-17 참조).

이밖에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주부교실을 운영하는 교회가 전체의 5.9%, 직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1.2%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도 다른 사회복지활동에 비해 적어 5명에서 34명 사이였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수도 적은 편이다.

〈表 4-17〉 女性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시설					
미혼모시설 운영	0.2	-	-	-	-
모자원 운영	32.4	-	-	-	-
프로그램					
주부교실	5.9	27.11	8.46	10.50	2.00
직업훈련 및 알선	1.2	5.00	1.00	-	1.00
기 타	2.4	33.60	4.80	-	1.00

(6) 失職者 및 露宿者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교회가 노숙자들을 위해서는 宿所나 食事를 提供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활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어서 노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의 7.8%에 불과한 상태이다(表 4-18 참조). 그리고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財政的 後援을 하는 교회가 10%인 반면,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인 직업안내(2.9%)와 직업훈련(0.5%)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노숙자와 실직자는 경기불황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관료적 경직성이 있는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을 위해서 종교계의 보다

활발한 참여가 요구되나,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교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그다지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실직자와 노숙자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은 아직 미약한 반면, 이러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수혜대상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를 제공받는 노숙자들이 평균 53명이나 되었고, 직업훈련 40명,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실직자 10명, 숙소를 제공받고 있는 노숙자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실직자와 노숙자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교회교인과 일반인의 참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노숙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교인(약 12명)보다 일반인(75명)이 6배 이상 더 많은 상황이다. 즉,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시설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는 교회교인이 아닌 일반인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表 4-18〉 失職者 및 露宿者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시설					
노숙자 숙소 제공	3.2	4.25	1.83	10.00	1.00
프로그램					
노숙자 식사 제공	7.8	53.10	11.77	75.00	2.00
직업훈련	0.5	40.00	4.50	-	-
직업안내	2.9	4.00	-	1.00	1.00
재정후원	10.0	9.20	4.90	2.00	1.00
기 타	1.5	37.00	10.00	-	-

(7) 地域住民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는 교회 내에 住民讀書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 교회의 1.2%에 해당한다(表 4-19 참조).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것은 貧民救助로 전체 교회의 30.7%가 이를 실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병원방문 22.9%, 이재민 구호 16.1%, 의료봉사 및 진료 12.4% 등이다. 이밖에 농산물 공동구매(5.6%), 성인교육, 한글학교(4.1%), 법률상담(3.2%)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表 4-19〉 地域住民 對象 施設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시설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		유급직원
			교회교인	일반인	
시설					
주민 독서실	1.2	80.00	17.50	-	-
프로그램					
빈민구조	30.7	17.07	19.70	34.36	3.00
의료봉사 및 진료	12.4	180.81	11.96	28.10	1.00
이재민 구호	16.1	57.14	10.86	126.80	1.67
병원방문	22.9	39.02	10.92	20.00	4.00
노동상담	1.5	30.00	1.33	30.00	1.00
법률상담	3.2	21.20	2.00	21.00	1.00
신용협동조합	1.5	600.00	217.33	740.00	3.00
농산물 공동구매	5.6	36.29	20.00	25.00	1.00
성인교육, 한글학교	4.1	19.70	4.44	15.00	1.00
기 타	4.1	75.30	59.62	14.67	1.00

이러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수혜인원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평균 17명에서 많게는 600명(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 이른다. 자원봉사자수도 교회교인 및 일반인의 참여가 활발하고, 특히 일반인의 참여가 교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유급직원도 1명에서 4명까지 배치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교회의 관심과 참여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민 대상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또한 복지를 공급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이다.

6. 社會福祉活動을 위한 人的·物的 資源

1) 社會福祉活動에 주로 使用하는 施設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대부분이 敎會 및 附帶施設이었다(表 4-20 참조). 교회가 운영하는 福祉施設은 사용하는 교회는 10.6%에 불과하다. 이는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의 시설을 사용하는 교회는 전체의 15.2%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구세군의 경우 다른 교단에 비해 교회 및 부대시설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곳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예장 합동측은 다른 교단에 비하여 교회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表 4-20〉 社會福祉活動에 주로 使用하는 施設[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교회 및 부대시설	91.8	69.5	86.7	70.8	70.4	66.7	46.7	74.2
교회운영 복지시설	1.4	12.6	13.3	15.4	11.1	12.8	13.3	10.6
기타	6.8	17.9	-	13.8	18.5	20.5	40.0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3)	(95)	(15)	(65)	(27)	(39)	(15)	(329)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2) 社會福祉를 위한 施設 充分 程度

사회복지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81.7%가 不足하다고 하여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4-21 참조). 교회의 본당이나 교육관, 식당 등의 부대시설은 주로 교회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교회는 전체 응답교회의 7.6%에 불과하다. 시설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시설을 새로 마련하기보다는 旣存의 施設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단별로는 다른 교단보다는 구세군이 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예장 합동측, 기장과 침례교가 다른 교단보다 상대적으로 시설의 부족을 더 높게 지적하고 있다.

〈表 4-21〉 所屬敎會의 社會福祉를 위한 施設의 充分 程度[1)]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충분	-	-	-	-	-	2.1	-	0.3
충분하다	3.4	9.2	-	11.9	-	6.3	20.0	7.3
그저그렇다	13.8	10.1	12.5	10.4	9.6	10.4	-	10.7
부족하다	34.5	43.7	50.0	50.8	45.2	35.4	46.7	42.3
매우 부족	48.3	37.0	37.5	26.9	45.2	45.8	33.3	3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7)	(119)	(16)	(67)	(31)	(48)	(15)	(383)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3) 社會福祉活動을 위한 人力의 充分 程度

교회는 다른 민간단체보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人力資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82.5%)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表 4-22 참조). 인력이 매우 충분하다는 목회자는 한 명도 없었고, 충분하다고 응답한 목회자도 2.9%에 불과하였다. 인력규모가 그저 그렇다고 한 응답은 14.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응답 교회들이 규모가 소규모로 교인이 100인 이하인 교회가 전체의 65.2%이고, 300인 이하인 교회는 전체의 82.7%여서 활용할 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인력이 충분치 못한 것은 敎人數의 부족이기보다는 교인들에게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管理技術 및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認識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교단별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력의 충분 정도에 있어서 구세군의 경우는 다른 교단보다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충분하다고 하였고

감리교는 인력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타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반면, 침례교와 성결교는 다른 교단보다 인력의 부족을 더 호소하고 있다.

〈表 4-22〉 所屬敎會의 社會福祉活動 人力의 充分 程度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충분	-	-	-	-	-	-	-	-
충분하다	1.2	3.5	6.7	2.9	-	2.2	13.3	2.9
그저그렇다	14.0	12.2	13.3	30.9	3.2	8.7	6.7	14.6
부족하다	38.4	45.2	53.3	42.7	38.7	39.1	66.7	43.1
매우 부족	46.4	39.1	26.7	23.5	58.1	50.0	13.3	3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6)	(115)	(15)	(68)	(31)	(46)	(15)	(376)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7.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呼應

1) 敎人의 呼應度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열의나 관심을 보기 위해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敎人들의 呼應度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인들의 호응은 대부분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0.6%가 교인의 호응도가 보통이라고 지적하였다(表 4-23 참조). 교인의 호응도가 낮다는 응답은 35.6%인 반면, 높다는 응답은 23.8%로 전자보다 다소 낮았다. 즉, 교인들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열성 및 관심도는 보통의 수준이거나 낮음을 알 수 있다.

교단별로는 구세군과 감리교가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교인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장, 침례교, 성결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장(합동, 통합)은 중간 수준의 호

응도를 보이고 있다.

〈表 4-23〉 所屬敎會 敎人의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呼應度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높다	2.3	0.9	-	1.5	3.2	2.2	20.0	2.4
높은 편	17.0	25.0	20.0	32.4	9.7	13.0	20.0	21.4
보통	43.2	37.9	26.7	39.7	38.7	45.7	53.3	40.6
낮은 편	25.0	27.6	53.3	17.6	32.3	32.6	6.7	26.4
매우 낮다	12.5	8.6	-	8.8	16.1	6.5	-	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8)	(116)	(15)	(68)	(31)	(46)	(15)	(369)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2) 地域住民의 呼應度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地域住民의 呼應度를 살펴보았더니, 교인보다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호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응답은 30.5%(교인 호응도: 23.8%)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교인이 38.1%였다(表 4-24 참조). 응답한 목회자의 31.3%(교인 호응도: 35.6%)만이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낮다고 하였다. 즉, 사회복지의 受惠對象者인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교인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별로는 다른 교단보다 구세군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더 높은 추세에 있었다. 예장 합동측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表 4-24〉 所屬敎會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地域住民의 呼應度

(단위: %, 명)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 체
매우 높다	2.5	3.7	-	4.8	3.4	-	20.0	3.7
높은 편	27.5	29.6	20.0	20.6	34.5	20.5	40.0	26.8
보통	30.0	32.4	46.7	55.6	34.5	43.1	33.3	38.2
낮은 편	25.0	26.9	33.3	9.5	17.3	27.3	6.7	22.0
매우 낮다	15.0	7.4	-	9.5	10.3	9.1	-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0)	(108)	(15)	(63)	(29)	(44)	(15)	(354)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8. 敎會社會福祉活動 弘報

1) 弘報方法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 및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홍보 방법은 敎會內의 廣告를 통한 홍보로 38.1%나 되었으며, 敎人을 통한 弘報도 33.7%로 나타나 대체로 체계화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25 참조). 매스컴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하였으며, 지역신문 및 지역뉴스레터 등에 게재하는 경우도 5.3%에 불과하여 홍보활동이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홍보가 주로 敎人 中心이 되면, 교인이외의 교회나 교인과 관계가 별로 없는 주민들에게는 홍보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회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表 4-25〉 敎會社會福祉活動 弘報方法(重複應答)

(단위: 명, %)

	빈 도	백분율
교회내의 광고	218	38.1
관공서, 지관에 알림	30	5.3
포스터이용	70	12.3
지역신문에 게재	30	5.3
매스컴, 인터넷이용	10	1.8
교인을 통한 홍보	192	33.7
기타	20	3.5
전체	570	100.0

2) 弘報의 必要性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表 4-26>에 제시된 것처럼 목회자의 37.1%가 '필요하다', 35.8%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72.9%가 必要性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필요없다'는 2.2%, '필요없다'는 11.2%로 나타나 13.4%가 '필요없다'라고 응답하여,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교단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단별로는 사회복지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구세군의 86.7%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여 다른 교단보다 약간 더 높게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들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弘報戰略을 開發해야 할 것이다.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홍보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表 4-26〉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弘報의 必要性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전혀없다	4.8	1.9	-	1.6	3.7	-	-	2.2
별로없다	14.3	13.9	13.3	3.1	18.5	8.9	-	11.2
보통이다	13.1	13.0	6.7	17.2	7.4	17.8	13.3	13.7
약간필요	34.5	35.2	40.0	43.7	37.1	40.0	26.7	37.1
매우필요	33.3	36.0	40.0	34.4	33.3	33.3	60.0	3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4)	(108)	(15)	(64)	(27)	(46)	(15)	(358)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3) 弘報의 問題點

사회복지활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敎人의 無關心이 25.7%, 弘報費의 不足이 25.4%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홍보기술의 부족 15.0%,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表 4-27 참조).

〈表 4-27〉 社會福祉活動의 弘報의 問題點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홍보비 부족	36.0	19.0	-	22.0	25.0	23.3	53.4	25.4
교인 무관심	17.9	34.0	45.4	13.6	39.3	27.9	13.3	25.7
지역주민무관심	15.4	11.0	9.1	15.3	7.1	20.9	13.3	13.8
홍보매체부족	3.8	14.0	-	8.5	7.1	2.3	-	7.5
홍보기술부족	12.8	12.0	36.4	22.0	17.9	14.0	-	15.0
기타	14.1	10.0	9.1	18.6	3.6	11.6	20.0	1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8)	(100)	(11)	(59)	(28)	(43)	(15)	(334)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즉,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의 관심 없음과 홍보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보다 활발한 홍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복지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교인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고, 이러한 인지도가 높아질 때 사회복지활동 홍보에 대한 교회의 재정적 지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세군과 예장 통합측은 홍보비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장과 침례교는 교인들의 무관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교단별로 상이한 홍보전략을 세우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社會福祉活動 財政

1) 敎會運營 社會福祉施設의 財政 充當

교회에서 운영하는 社會福祉施設(機關)의 財政은 어디에서 주로 충당되는지에 대하여 응답기관의 56.4%가 敎會 獻金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었다(表 4-28 참조). 개인 후원금에 의존하는 경우는 26.6%, 공동모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경우는 7.8%로서, 둘을 합하면 34.4%에 해당되는 경우가 사회복지를 위한 자발적인 후원기금으로부터 충당됨을 알 수 있다. 政府支援金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5.5%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表 4-28〉 敎會運營 福祉施設의 財政 充當(2個 選擇)

(단위: 명, %)

	빈 도	백분율
교회헌금	289	56.4
정부지원금	28	5.5
개인후원금	136	26.6
공동모금	40	7.8
노회지원	2	0.4
총회(총본영)지원	1	0.2
민간단체지원	3	0.6
기타	13	2.5
전 체	512	100.0

교회들은 자체적으로나 개별적인 후원금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목회자의 교인에 대한 사회복지활동에 중요성 제시, 그리고 일반인의 지원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교인들에 대한 사회복지관련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목회자들에게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社會福祉活動에 支出되는 財政比率

사회복지활동에 지출되는 費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하여 3%에서 5% 사이가 30.1%나 되었으며, 다음은 6%에서 10%가 23.8%, 1%에서 2%가 22.6% 순으로 나타났다(表 4-29 참조). 즉, 조사대상 교회의 78.6%가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는 재정비율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1.4%의 교회만이 전체 예산의 11% 이상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한국자원

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조사의 평균 7.02%나 노치준(1995)연구의 2.3% 보다는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한 목회자들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목회자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과거보다는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는 재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절대비율에 있어서는 저조한 상황이라 하겠다.

교단별로는 사회복지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이 없다는 교회는 예장 통합측 및 합동측과 침례교로 전체의 2.1%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에 전체 교회재정의 21% 이상을 지출하는 교회도 6.9%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세군의 비율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체 재정의 10% 이하를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表 4-29〉 社會福祉活動에 支出되는 財政比率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없음	2.9	2.9	-	-	7.1	-	-	2.1
1-2%	29.9	20.0	15.4	22.6	32.2	17.5	7.1	22.6
3-5%	24.3	32.3	7.7	37.1	21.4	45.0	7.1	30.1
6-10%	24.3	22.9	53.8	27.4	25.1	12.5	14.3	23.8
11-20%	12.9	14.3	23.1	8.1	7.1	17.5	50.1	14.5
21% 이상	5.7	7.6	-	4.8	7.1	7.5	21.4	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0)	(105)	(13)	(62)	(28)	(40)	(14)	(332)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3) 特別獻金 및 募金 經驗

1998년도에 구제 및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特別獻金 혹은 募金을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74.9%가 '있다'라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교회들이 특별헌금이나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4-30 참조). 특별헌

금이나 모금을 한 경험이 없는 교회는 전체의 25.1%에 불과하였다.

대한기독교 성결교, 침례교, 예장 통합측, 구세군의 경우 상당수가 특별헌금이나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와 예장 합동측에서는 특별헌금이나 모금을 하는 비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表 4-30〉 特別獻金 및 募金 經驗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있다	66.7	82.8	71.4	88.2	64.5	58.1	66.7	74.9
없다	33.3	17.2	28.6	11.8	35.5	41.9	33.3	2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	(116)	(14)	(68)	(31)	(43)	(12)	(359)

χ^2=21.690***, p=.001 *** p< .001

4) 特別獻金 및 募金의 目的

특별헌금 및 모금을 하는 목적으로는 奬學事業을 위하여 실시한 교회가 24.8%나 되었으며, 水害救護 獻金이 19.9%,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建立費나 運營費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가 19.2%, 사회봉사주일의 헌금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表 4-31 참조). 이와 같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헌금이나 모금은 성격상 재해나 빈곤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응급처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특별헌금을 하는 경우는 5.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금은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모금이 一回性이고 短期的인 한 지속적인 사회복지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모금을 통해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表 4-31〉 特別獻金 및 募金의 目的 (重複應答)

(단위: 명, %)

	빈 도	백분율
수해구호헌금	123	19.9
연말연시 특별구호헌금	40	6.5
사회봉사주일 헌금	108	17.4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방문 및 지원	39	6.3
교회운영 사회복시시설 건립비 및 운영비	119	19.2
장학사업	153	24.8
어려운 이웃 지원	33	5.3
기타	4	0.6
전 체	619	100.0

5) 社會福祉事業費의 適正性

작년에 사용한 社會福祉事業費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66.5%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으며, 21.1%가 '부족하다'라고 하여 87.6%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表 4-32 참조). '충분하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하였다.

교단간의 별다른 차이 없이 모두 사회복지재정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교단을 불문하고 교회차원에서의 支援의 未備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식의 결여와 사회복지활동이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난 데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表 4-32〉 社會福祉事業費의 適正性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매우부족	65.9	66.6	73.3	59.1	76.7	68.7	66.6	66.5
약간부족	14.8	23.1	20.0	28.8	20.0	18.8	20.0	21.1
보통	15.9	7.7	6.7	7.6	3.3	10.4	6.7	9.5
약간충분	3.4	1.7	-	4.5	-	2.1	-	2.4
매우충분	-	0.9	-	-	-	-	6.7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8)	(117)	(15)	(66)	(30)	(30)	(15)	(379)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6) 適正 社會福祉事業費 豫算 比率

사회복지사업비의 豫算은 총예산의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6～10%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表 4-33 참조). 사회복지사업비가 예산의 16%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가 26.0%, 11%에서 15% 사이로 응답한 교회는 18.4%로 나타나, 이 둘을 합하면 교회예산의 11% 이상이 사회복지사업비이어야 한다는 교회는 전체의 44.4%이었다. 반면에 2%이내이어야 한다가 4.4%, 2%에서 4%가 10.1%로 나타나 4%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14.5%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많은 수의 목회자들은 사회복지사업비가 敎會財政의 10% 이하가 適當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44% 이상의의 목회자는 사회복지사업비가 교회재정의 1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기장과 구세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비가 다른 교단에 비해 많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表 4-33〉 適正 社會福祉事業費 豫算 比率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1~ 2%	6.7	5.0	6.3	4.5	3.2	-	-	4.4
3~ 4%	6.7	12.5	-	16.7	6.5	10.9	-	10.1
4~ 10%	47.3	36.6	25.0	34.8	64.5	41.3	35.3	41.1
11~15%	11.2	19.2	18.8	25.8	9.7	26.1	17.6	18.4
16% 이상	28.1	26.7	49.9	18.2	16.1	21.7	47.1	2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9)	(120)	(16)	(66)	(31)	(46)	(17)	(385)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10. 地域社會와의 關係

1) 地域內 他敎會와의 關係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교회 사회복지활동은 個敎會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역내의 교회가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용이하다. <表 4-34>에는 교회들의 지역내의 다른 교회와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내의 다른 교회와 관계가 協調的이라는 교회가 46.1%로 나타났다. 반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4.5%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타교회와의 관계가 매우 疏遠하다는 31.8%, 소원하다는 17.6%로 나타나 49.4%가 소원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즉, 거의 반에 해당하는 교회는 지역내의 다른 교회들과 약간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교회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교회간에 어떠한 분야에서 협조를 하는지를 조사하지 않아, 협조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다. 향후에는 교회간의 협조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개교회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교단에 비해 구세군이 지역사회내에서 타교회와 긴밀하거나 부분적인 협조관계에 있었고, 기장이 상대적으로 타교회와의 관계가 더 소원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34〉 地域內의 他敎會와의 關係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매우소원	38.0	23.7	46.7	32.8	35.5	36.2	20.0	31.8
약간소원	24.1	18.6	-	16.4	16.1	14.9	6.7	17.6
부분협조	34.5	55.2	46.7	46.3	41.9	44.6	53.3	46.1
긴밀협조	3.4	2.5	6.6	4.5	6.5	4.3	20.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7)	(118)	(15)	(67)	(31)	(47)	(15)	(380)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2) 公共機關과의 關係

사회복지활동은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복지를 담당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서와의 접촉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고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表 4-35>에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한 지역사회내 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의 公共機關과의 관계에 대하여 部分 協調關係는 49.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별 관계가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되었다. 반면,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7.0%에 불과하였다. 공공기관과 심한 葛藤關係에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表 4-35〉 公共機關과의 關係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관계없음	51.1	46.2	23.5	29.4	48.4	42.9	20.0	42.1
심한 갈등	-	-	-	-	-	-	-	-
약간불편	3.4	-	-	-	3.2	-	-	1.0
부분협조	39.8	46.2	70.6	63.2	35.5	53.0	73.3	49.9
긴밀협조	5.7	7.6	5.9	7.4	12.9	4.1	6.7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8)	(119)	(17)	(68)	(31)	(49)	(15)	(387)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침례교와 예장 합동측이 다른 교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내의 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의 공공기관과는 부분적인 협조관계에 있거나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회들은 다른 교회와의 관계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긴밀하지는 않고 부분적인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교회들이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어느 정도의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하므로, 교회들은 지역사회내의 다른 교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뿐 아니라 공공기관과의 關係 改善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敎會 開放 與否

지역사회의 住民들에게 교회를 開放하는 교회는 58.7%로 나타났으며, 41.3%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반수보다 약간 더 많은 교회만이 지역주민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있었다(表 4-36 참조). 교단별로 교회개방 비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表 4-36〉 敎會 開放 與否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51.6	57.6	81.2	63.8	61.3	54.2	70.6	58.7
아니오	48.4	42.4	18.8	36.2	38.7	45.8	29.4	4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1)	(118)	(16)	(69)	(31)	(48)	(17)	(390)

χ^2=7.494, p=0.278

사회복지활동은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책임이며 역할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단순히 구제나 자선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교회자체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의 교회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에의 接近度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4) 地域住民들을 위한 프로그램 運營 與否

교회에서 주중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교회는 21.7%에 불과하였으며, 78.3%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表 4-37 참조). 즉,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중 주중에 따로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적었다. 교회들은 주중에도 주로 교인들을 위주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단별로는 구세군과 감리교가 상대적으로 주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성결교와 예장 통합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表 4-37〉 地域住民들을 위한 프로그램 運營 與否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11.3	24.3	26.7	35.9	17.2	6.7	43.8	21.7
아니오	88.7	75.7	73.3	64.1	82.8	93.3	56.2	7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0)	(111)	(15)	(64)	(29)	(45)	(16)	(360)

χ^2=24.375***, p=.000 *** p < .001

11. 敎會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1) 必須 社會福祉活動 分野

한국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활동분야에 대하여 老人福祉가 29.5%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青少年福祉 16.7%, 障碍人福祉 15.8% 순으로 나타났다(表 4-38 참조). 그밖에 지역사회복지(12.9%), 특수소외계층복지(11.7%)도 상당수가 지적한 복지 분야이다. 반면, 여성복지 및 가족상담분야는 소수인 4.2%만이 지적하여 매우 낮은 認知率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목회자들은 향후 교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보호하며, 장애인과 특수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담당할 시설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도 교회가 필수적으

로 실천할 분야로 지적하였다. 현재 많이 실시하고 있는 분야인 兒童福祉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 인지도가 낮았고, 현재도 많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女性福祉 분야는 향후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었다.

〈表 4-38〉 必須 社會福祉 活動分野(2個 選擇)

(단위: %, 명)

	빈 도	백분율
아동복지	69	8.6
청소년복지	134	16.7
노인복지	237	29.5
장애인복지	127	15.8
여성복지/가족상담	34	4.2
지역사회복지	104	12.9
특수소외계층복지	94	11.7
기타	5	0.6
전체	804	100.0

2) 社會福祉活動 遂行의 어려운 點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으로 종합점수(表 4-39 註 1) 참조)를 구한 결과 교회의 財政問題가 581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교회의 施設과 空間의 不足도 23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表 4-39 참조). 이밖에 지식과 기술의 부족(101점), 신자들의 인식 부족(99점)도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종교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목회자들은 사회복지를 하기에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내에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表 4-39〉 社會福祉活動 遂行의 어려운 點 綜合點數

(단위: 명, %)

	1순위	2순위	종합점수[1]	백분율
교회 재정문제	272	37	581	51.0
지식과 기술부족	23	55	101	8.9
시설 및 공간 부족	40	155	235	20.6
신자들 인식부족	19	61	99	8.7
지역주민 호응부족	3	24	30	2.6
행정절차 복잡	3	8	14	1.2
당회의 소극적	10	13	33	2.9
어려움 없음	3	4	10	0.9
기타	9	19	37	3.2
전체	382	376	1140	100.0

註: 1) 종합점수=(1순위 빈도×200%) + (2순위 빈도×100%)

교회재정 면에서는 교회예산을 편성할 때 優先順位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석된다. 미자립한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들은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산배정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시설과 공간 부족 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특별한 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회의 건물들을 사용하면 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牧會者들의 認識轉換이 있어야 하겠다. 교회의 본당이나 부대시설들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을 잘 활용하여 주중에는 교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였다(4개 교회).

3) 社會福祉活動時 가장 必要한 것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할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이중 실제 프로그램

의 진행에 대한 지식이 24.4%,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23.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가 23.1%,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지식이 18.5% 순으로 나타났다(表 4-40 참조).

교단별로는 기장의 경우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한 교회도 없었으나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은 3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교회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구세군의 경우는 다른 교단보다 지역사회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應答率이 높았다.

보다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情報가 필요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개교회 차원에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도 있겠으나,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의 종류나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體系的인 敎育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신학대학의 교과목에서 개설될 수도 있겠고 목회자 재교육 및 훈련기간 동안에 제공될 수도 있겠다. 목회자의 인식제고 및 사회복지활동 실천에 필요한 교육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表 4-40〉 社會福祉活動시 가장 必要한 것

(단위: %, 명)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지역사회정보	21.8	24.3	18.8	27.7	22.6	11.4	40.1	23.1
프로그램정보	21.8	23.5	37.4	30.7	9.7	22.7	13.3	23.3
실제프로그램지식	23.1	25.3	25.0	16.9	35.4	25.0	33.3	24.4
사회복지관련지식	16.1	16.5	18.8	18.5	25.8	25.0	13.3	18.5
인간관계지식	11.5	7.8	-	3.1	6.5	9.1	-	7.2
기타	5.7	2.6	-	3.1	-	6.8	-	3.5
계 (N)	100.0 (87)	100.0 (115)	100.0 (16)	100.0 (65)	100.0 (31)	100.0 (44)	100.0 (15)	100.0 (373)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4) 敎會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회의 社會福祉에 대한 認識과 支持가 필요하다고 목회자의 42.4%가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物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목회자의 26.8%가 지적하였다(表 4-41 참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에 대해서는 17.4%의 목회자가 지적하여 이에 대한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적지원은 7.1%에 불과하였으며, 전문인력의 지원은 5.6%로 나타나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表 4-41〉 敎會 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단위: %, 명)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복지인식과지지	35.1	45.1	58.8	44.2	32.3	50.0	35.3	42.3(168)
지역사회유대감	24.2	12.9	5.9	25.0	12.9	8.3	29.4	17.4 (69)
인적지원	5.5	8.9	5.9	4.4	-	12.5	11.8	7.1 (28)
전문인력지원	4.4	6.5	11.8	2.9	12.9	4.2	-	5.6 (22)
물적지원	29.7	25.8	17.6	23.5	38.7	25.0	23.5	26.8(106)
기타	1.1	0.8	-	-	3.2	-	-	0.8 (3)
계 (N)	100.0 (91)	100.0 (124)	100.0 (17)	100.0 (68)	100.0 (31)	100.0 (48)	100.0 (17)	100.0 (396)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교인과 목회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積極的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을 비롯한 물질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면에서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 교인의 자발적인 사회복지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과 타 교회, 복지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 節　敎會의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活動 現況

다음에는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自願奉仕는 사회복지활동의 한 유형이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를 채워주는 기관중의 하나가 교회를 비롯한 종교기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자원봉사활동에 參與하고 있고, 지역내의 다른 社會福祉機關과의 關係는 어떠하고 자원봉사활동상의 어떠한 問題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교회내의 자원봉사활동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1.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 프로그램 實施 與否

우선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35.6%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64.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교회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가지

고 있지 않고 약 3분의 1이 조금 넘는 교회만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42 참조). 교회내에는 많은 인력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가 본격화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원봉사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제고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정립되면 교회내에서의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와 교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의 理念과 必要性을 認識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단별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시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세군과 감리교, 기장이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았으며, 성결교와 예장 통합측, 침례교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4-42〉 地域社會를 위한 自願奉仕 프로그램 實施 與否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25.3	33.0	55.6	61.5	27.6	11.6	60.0	35.6
아니오	74.7	67.0	44.4	38.5	72.4	88.4	40.0	6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	(115)	(18)	(65)	(29)	(43)	(15)	(368)

χ^2=41.856***, p=.000 *** p< .001

2. 社會福祉機關과 連繫한 自願奉仕活動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과 連繫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회는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의 53.2%로 절반이 조

금 넘었으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46.8%로 나타났다(表 4-43 참조). 구세군, 성결교, 예장 통합측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실시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효율성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혹은 지역내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한다면, 지역내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데 용이할 것이다.

〈表 4-43〉 社會福祉機關과 連繫한 自願奉仕活動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67.9	47.6	50.0	60.0	20.0	66.7	69.2	53.2
아니오	32.1	52.4	50.0	40.0	80.0	33.3	30.8	4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	(82)	(10)	(60)	(20)	(9)	(13)	(222)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3. 敎人들의 自願奉仕 始作 時期

교회의 교인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에 대하여, 38.2%가 5년 전부터라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부터 시작하였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나 65.6%가 최근 5년 이내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4-44 참조). 우리 나라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아시아올림픽경기와 1988년 올림픽경기 이후였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本格化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특히 1995년 中·高等學校에서 자원봉사가 義務化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내에서의 자원봉사도 최근 5년 이내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교회의 20% 정도는 자원봉사를 1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의 사명으로써 봉사활동을 일찍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 4-44〉 敎人들의 自願奉仕 始作 時期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1년 이내	48.0	24.6	20.0	18.0	29.4	28.6	41.7	27.4(51)
5년 전	20.0	41.5	40.0	48.0	47.1	28.6	8.3	38.2(71)
10년 전	20.0	15.4	20.0	12.0	-	14.2	25.0	14.5(27)
11년 이상	12.0	18.5	20.0	22.0	23.5	28.6	25.0	19.9(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	(65)	(10)	(50)	(17)	(7)	(12)	(186)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4. 社會福祉活動(自願奉仕活動)에 參與하는 信徒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신도수에 대하여 월평균 10명 미만이라는 교회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33.5%가 20명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86.8%가 20명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表 4-45 참조). 조사대상 교회의 평균 출석교인수가 약 400명임을 감안하면, 평균 전 교인의 약 2.5%에서 5%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自願奉仕 參與率 10%(비공식 통계임)에 못미치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교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表 4-45〉 社會福祉活動에 參與하는 信徒數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10명 미만	48.2	59.1	44.4	40.7	80.0	37.5	61.5	53.3
20명 미만	44.4	28.8	55.6	35.2	20.0	37.5	30.8	33.5
100명 미만	7.4	10.6	-	20.4	-	25.0	7.7	11.7
500명 미만	-	1.5	-	3.7	-	-	-	1.5
계	100.0 (27)	100.0 (66)	100.0 (9)	100.0 (54)	100.0 (20)	100.0 (8)	100.0 (13)	100.0 (197)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5. 自願奉仕活動이 敎會에 미치는 影響

자원봉사활동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응답한 목회자의 47.9%가 敎會에 대한 좋은 認識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40.6%가 敎人들의 信仰訓練에 도움을 주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응답하였다(表 4-46 참조).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되거나 교회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응답을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주민들에게 생김으로 간접적으로 교회 홍보가 되어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돌아올 혜택에 대해서 상당히 肯定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4-46〉 自願奉仕活動이 敎會에 미치는 影響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성장발전	9.1	11.3	-	1.7	5.0	22.2	-	7.1
좋은인식	48.5	44.9	55.6	46.7	55.0	33.3	61.5	47.9
신앙훈련	33.3	41.3	44.4	48.3	30.0	44.5	30.8	40.6
홍보전도	9.1	2.5	-	3.3	5.0	-	7.7	4.0
기 타	-	-	-	-	5.0	-	-	0.4
계	100.0 (33)	100.0 (80)	100.0 (9)	100.0 (60)	100.0 (20)	100.0 (9)	100.0 (13)	100.0 (224)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6. 自願奉仕者 活用과 地域社會와의 關係 改善

<表 4-47>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地域社會와의 關係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간에 관계 유지 및 개발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24.5%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여 74.0%가 肯定的인 평가를 하였다. 반면에 '도움이 안된다' 6.9%,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1.5%로 나타나 8.4%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4분의 3정도가 되는 목회자가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간에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表 4-47〉 自願奉仕者의 活用과 地域社會 關係의 改善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전혀안됨	-	2.8	-	-	5.0	-	-	1.5
별로안됨	6.5	5.6	11.1	7.8	5.0	12.5	7.7	6.9
보통	19.4	12.5	33.3	19.6	25.0	12.5	15.4	17.6
약간도움	51.5	48.5	22.3	56.9	45.0	37.5	53.8	49.5
매우도움	22.6	30.6	33.3	15.7	20.0	37.5	23.1	24.5
계	100.0 (31)	100.0 (72)	100.0 (9)	100.0 (51)	100.0 (20)	100.0 (8)	100.0 (13)	100.0 (204)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7. 敎人들의 自願奉仕活動에서의 隘路點

목회자들이 지적한 교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교인들이 時間내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교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24.0%로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요인으로 나타났다(表 4-48 참조). 이러한 두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낮은 자원봉사참여율을 낳았을 것이라고 본다. 바쁜 생활속에서 살고 있는 교인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가 자원봉사를 매우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봉사자에게도 보람과 기쁨을 줌을 인식할 때,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교인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교회예산이 부족이 15.8%, 시설 및 공간이 부족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교회는 1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원봉사에 대한 교회예산 부족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낮은 사회봉사예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사회봉사예산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원봉사를 위시한 사회복지활동이 선교의 일부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력봉사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表 4-48〉 敎人들의 自願奉仕活動에서의 隘路點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시간내기어려움	36.7	33.3	60.0	38.0	35.0	22.2	46.1	36.6
자원봉사 인식부족	20.0	27.2	20.0	24.1	30.0	11.1	15.4	24.0
주민연계어려움	3.3	2.5	10.0	6.9	-	-	7.7	4.1
교회예산부족	3.3	21.0	10.0	12.1	30.0	22.2	7.7	15.8
교회시설 공간부족	20.0	12.3	-	15.5	5.0	33.4	7.7	13.6
어려움없음	10.0	3.7	-	3.4	-	11.1	15.4	5.0
기타	6.7	-	-	-	-	-	-	0.9
계	100.0 (30)	100.0 (81)	100.0 (10)	100.0 (58)	100.0 (20)	100.0 (9)	100.0 (13)	100.0 (221)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8. 自願奉仕豫算 擴充

자원봉사활동에서 예산은 중요하다. 예산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이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表 4-52>에 제시되었듯이 자원봉사에 필요한 예산의 확충은 교회 예산 중에서 책정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 개인 차원에서 동원된다가 25.8%, 교회내의 각 기관별·부서별로 예산을 책정한다가 23.2%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회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는 전체의 62.6%에 해당된다. 다른 교단에 비해 예장 통합

측이 개인 차원에서 예산을 동원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表 4-49〉 自願奉仕豫算 擴充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개인차원	53.6	18.1	28.6	24.5	21.1	14.3	25.0	25.8
부서별	14.3	23.6	28.6	26.4	26.3	14.3	25.0	23.2
이벤트	-	9.7	-	13.2	-	-	16.7	8.1
교회예산	32.1	47.2	28.6	32.1	47.3	57.1	25.0	39.4
기타	-	1.4	14.2	3.8	5.3	14.3	8.3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	(72)	(7)	(53)	(19)	(7)	(12)	(198)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교회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豫算支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개인도 상당수 활동비를 지불하고 있었고, 교회전체 차원에서보다는 부서나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의 不充分性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위시한 사회복지활동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중요성 강조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9. 自願奉仕者들의 問題點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問題點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表 4-49>에 제시되었듯이 현재 교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49.0%가 專門性이 缺如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19.1%가 責任意識이 不足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힘든 일을 꺼린다는 응답도 10.3%로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이 지적된 전문성 결여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자원봉사를 기피하여서 발생한 면도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 몰라서 사장되어 발생한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의 개발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에 필요한 技術 및 知識, 그리고 態度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에는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들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전문가가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훈련, 배치, 수요처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교회에 초빙하거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表 4-50〉 自願奉仕者들의 問題點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책임감 부족	10.3	16.4	28.6	22.2	10.0	25.0	46.2	19.1
전문성 결여	38.0	54.9	28.6	50.0	45.0	50.0	53.8	49.0
중도포기	13.8	8.2	-	7.4	10.0	-	-	7.8
힘든일 꺼림	13.8	9.6	-	7.4	20.0	25.0	-	10.3
원칙무시	-	2.7	14.2	-	-	-	-	1.5
문제없음	20.7	6.8	28.6	11.1	15.0	-	-	10.8
기타	3.4	1.4	-	1.9	-	-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9)	(73)	(7)	(54)	(20)	(8)	(13)	(204)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10. 自願奉仕者 管理

실제로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는 주로 누가 관리하는가에 대하여는 <表 4-50>에 제시되었듯이 61.9%가 牧會者가 直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는 각 부서장이 담당한다라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 전공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였다.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8.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非專門家가 담당하고, 더구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직접 담당하게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된다.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한데, 현재 교회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表 4-51〉 自願奉仕者 管理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목회자	74.9	69.5	50.0	41.7	57.9	87.5	75.0	61.9
사무직원	-	-	-	1.8	-	-	-	0.5
전공자	-	-	12.5	3.6	5.3	-	-	2.0
각부서장	17.9	19.4	25.0	43.8	10.5	12.5	25.0	25.2
기타	3.6	-	-	3.6	-	-	-	1.5
없음	3.6	11.1	12.5	5.5	26.3	-	-	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	(72)	(8)	(55)	(19)	(8)	(12)	(202)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자원봉사를 전문으로 한 전공자가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면서 수요처를 개발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합한 곳에 배치하는 일을

할 때, 자원봉사활동의 效率性을 높이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자원봉사를 위시하여 각종 사회복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11. 自願奉仕者 敎育·訓練

자원봉사자 敎育은 자원봉사자가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과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자원봉사자에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훈련은 세부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동, 태도,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김미숙 외, 1998).

자원봉사자의 교육이나 훈련을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대하여 45.8%가 교회내 講習을 통하여 실시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교회도 3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51 참조). 지역사회에 소재한 福祉館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는 10.0%로 조사되었다. 즉,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교회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3분의 1이나 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이 조직적이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감리교와 구세군의 경우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表 4-52〉 自願奉仕者 敎育·訓練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교회강습	46.4	43.7	42.9	45.5	45.0	50.0	58.3	45.7
총회노회	-	14.1	-	1.8	-	-	-	5.5
복지관	3.6	5.6	14.2	18.2	10.0	-	16.7	10.0
기 타	3.6	5.6	-	10.9	-	-	-	5.5
실시안함	46.4	31.0	42.9	23.6	45.0	50.0	25.0	3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	(71)	(7)	(55)	(20)	(8)	(12)	(201)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第 4 節 牧會者의 特性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인식은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교회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見解 및 活動狀況,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關心과 參與度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重要性 認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목회자의 90.1%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중요하다는 응답도 6.7%로 나타나 96.8%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表 4-53 참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목회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53〉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重要性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전혀 안 중요	-	-
안 중요	-	-
보통	13	3.2
약간 중요	27	6.7
매우 중요	366	90.1
전체	406	100.0

2. 自願奉仕活動 參與 經驗

응답자가 자원봉사활동에 直接的으로 參與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69.9%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였고, 30.1%가 참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여 상당수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54 참조). 목회자들 자신이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表 4-54〉 自願奉仕活動 參與 經驗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예	256	69.9
아니오	110	30.1
전체	406	100.0

3. 地域社會 自願奉仕活動 參與 後 意識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난 후 응답자의 느낌은 <表 4-55>에 제시되어있다. 대체로 목회자의 소감은 肯定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他人에 대한 理解 增進(39.2%)과 社會問題에 대한 이해

의 증진(33.6%)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 증진(8.3%), 전도의 기초가 닦여졌다(7.5%)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 및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하고 共同體 意識 및 住民과의 紐帶가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지관에 대한 이해 증진이나 기타 전도효과는 위의 사항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목회자의 자원봉사 참여로 긍정적인 결과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4-55〉 地域社會 自願奉仕活動 參與 後 意識

(단위: %,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타인에 대한 이해증진	-	-	5.4	55.4	39.2	100.0(239)
사회문제의 이해증진	0.4	1.3	7.1	57.6	33.6	100.0(237)
공동체의식의 증진	0.4	1.7	10.9	55.6	31.4	100.0(238)
주민과의 관계향상	0.4	0.8	21.0	47.6	30.2	100.0(247)
교회의 이미지 향상	0.4	3.0	21.5	53.6	21.5	100.0(232)
전도의 기초가 닦여짐	0.4	7.5	26.8	49.4	15.9	100.0(238)
복지관에의 이해증진	1.3	8.3	19.1	52.2	19.1	100.0(229)

4.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態度

목회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는 <表 4-56>에 제시되어 있다. 목회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나타났으며, '매우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전체의 52.7%가 積極的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응답은 5.1%, '소극적'이라는 응답은 20.2%로 전체의 25.3%가 消極的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즉, 목회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반은 소극적이거나 보통의 태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表 4-56〉 自願奉仕活動에 대한 態度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매우 소극적	20	5.1
소극적	79	20.2
그저 그렇다	79	20.2
적극적	175	44.8
매우 적극적	31	7.9
참여 안함	7	1.8
전체	391	100.0

5. 自願奉仕 訓練 및 敎育 經驗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33.8%만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66.3%는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57 참조). 즉, 대부분은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단별로는 구세군과 예장(합동)의 경우가 다른 교단에 비해 목회자가 자원봉사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情報와 활동관련 技術을 習得해야 한다. 목회자들 자신이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교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나 기회가 필요하다. 이는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組織的으로 實施할 수도 있을 것이다.

〈表 4-57〉 自願奉仕 訓練 및 敎育 經驗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21.9	44.8	22.2	35.8	29.0	20.8	73.3	33.8
아니오	78.1	55.2	77.8	64.2	71.0	79.2	26.7	66.2
계	100.0 (96)	100.0 (125)	100.0 (18)	100.0 (67)	100.0 (31)	100.0 (48)	100.0 (15)	100.0 (400)

χ^2=28.480***, p=.000 *** p< .001

6. 自願奉仕 意向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하여 목회자의 94.5%가 參與할 意思가 있다고 하였으며, 5.5%만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表 4-58 참조). 즉, 거의 모든 목회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 반응을 보였다.

〈表 4-58〉 自願奉仕 意向

(단위: %, 명)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전체
예	92.6	96.8	94.4	92.6	96.8	95.8	86.7	94.5
아니오	7.4	3.2	5.6	7.4	3.2	4.2	13.3	5.5
계 (N)	100.0 (95)	100.0 (125)	100.0 (18)	100.0 (68)	100.0 (31)	100.0 (48)	100.0 (15)	100.0 (400)

註: 1)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20% 이상이어서 χ^2 검증을 하지 않았음.

7. 自願奉仕 參與動機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나 동기에 대하여는 <表 4-59>에 제시되어 있다. 表에 제시되었듯이 목회자의 40.7%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28.2%가 '이웃을 돕고 싶어

서'라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15.7%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다고 하였으며, 5.9%가 '솔선수범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대체로 宗敎的 가르침과 人間愛에 基礎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나 여가선용 등의 개인적인 이유는 적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며 교인들의 모범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表 4-59〉 自願奉仕 參與動機(重複應答)

(단위: %, 명)

	빈도	백분율
이웃을 돕고 싶어	197	28.2
솔선수범 하기 위해	41	5.9
자신의 성장과 발전	36	5.2
여가활용 위해	1	0.1
지식과 경험을 쌓으려	7	1.0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110	15.7
친지, 이웃의 권고로	1	0.1
사회복지기관 권고로	4	0.5
교회 교인을 도우려	13	1.9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284	40.7
참여할 의향 없음	5	0.7
전 체	699	100.0

8. 自願奉仕 勸奬

교인들에게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권장하는가에 대하여 42.2%가 '약간 권장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6%가 '매우 권장한다'라고 응답하여 75.8%가 교인들에게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4-60 참조). 반면에 '별로 권장하지 않음'은 3.5%에 불과하였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自願奉仕活動을 勸奬하고 있어, 이러한 태도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表 4-60〉 自願奉仕 勸奬

(단위: %, 명)

	빈도	백분율
매우 권장	133	33.6
약간 권장	167	42.2
보통	82	20.7
별로 권장하지 않음	14	3.5
전혀 권장하지 않음	-	-
전체	396	100.0

9. 地域社會 福祉施設이나 機關으로부터의 要請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여러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表 4-61>과 같이 나타난다.

조사결과, 福祉活動 基金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은 비율은 75.8%로 나타났으며, 이중 84.6%가 이 기금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를 위한 相談 또는 諮問을 목회자가 요청받은 경우는 36.4%로 나타났으며, 이중 실제 이에 참여한 비율은 90.3%였다. 福祉機關의 行事에 어떤 역할을 맞아 줄 것을 요청받은 목회자는 39.2%로 나타났으며, 이중 89.7%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관에서 필요한 自願奉仕者들을 支援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47.4%로 나타났으며, 참여율은 94.8%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弘報를 부탁하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9.1%이었으며, 이중 94.8%가 요청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기관 직원이 교회를 방문하여 섭외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3%로 나타났으며, 이중 96.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이 다른 것보다 높았다.

〈表 4-61〉 地域社會 福祉施設이나 機關으로부터의 要請

(단위: %, 명)

	요청받음		참여함[1)]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지활동기금에 참여 요청받음	273	75.8	226	84.6
지역사회 상담 자문 요청받음	117	36.4	102	90.3
복지기관 행사에 역할수행 요청받음	124	39.2	105	89.7
복지기관 자원봉사 지원 요청받음	157	47.4	126	83.4
복지기관 프로그램 홍보 요청받음	161	49.1	146	94.8
복지기관 직원이 목회자 방문 섭외	133	40.3	126	96.9

註: 1) 요청받은 교회 중 참여한 교회의 비율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의 비율임.

전체적으로 기금지원의 경우 요청을 받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기금지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2~3교회 중 한 교회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의 대부분은 수락되어, 교회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요청을 받고 있어, 이러한 機關들이 敎會와 連繫 속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사회복지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의 복지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10. 地域社會福祉機關 訪問 程度

다음에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한 목회자 중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 등을 定期的으로 訪問하는 경우는 11.7%로 나타났으며, 69.4%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18.9%로 나타났다.

〈表 4-62〉 地域社會 福祉機關 訪問 程度

(단위: %, 명)

	빈도	백분율
거의 방문 안함	74	18.9
특별한 때 방문	272	69.4
정기적인 방문	46	11.7
전체	392	100.0

목회자들이 대부분 비정기적으로나마 사회복지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보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비율은 적어 목회자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참여에 대한 미진함이 있다. 목회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교회와 地域의 社會福祉施設간의 連繫가 持續될 수 있어야만 지역의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11. 定期的인 訪問의 경우의 訪問 頻度

정기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방문할 경우 어느 정도 자주 방문하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목회자 45명 중 21명(46.6%)이 한 달에 한 두 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월 1회 이하 17명(37.8%), 매주 한 번 꼴로 가는 경우도 7명(15.6%)으로 나타났다(表 4-63 참조). 즉,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63〉 定期的인 訪問의 경우의 訪問 頻度

(단위: %, 명)

	빈도	백분율
월 1회 이하	17	37.8
월 1~2회	21	46.6
거의 매주	7	15.6
전체	45	100.0

第 5 節 敎會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

교회사회복지활동은 사회복지 예산, 교인 및 주민의 호응, 목회자의 인식 등 다양한 측면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교회사회복지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社會福祉豫算과 다른 要因과의 相關關係

<表 4-64>에서는 사회복지예산과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복지예산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어떠한 목회자나 교회에서 사회복지예산을 높게 책정하는지를 알 수 있다.

社會福祉施設의 충분 정도(V18)는 사회복지예산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내의 사회복지활동의 人力 충분 정도(V20)도 사회복지예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敎人의 사회복지에 대한 呼應度가 높은 교회일수록(V21) 사회복지예산이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住民의 呼應度가 높은 교회일수록(V22)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높았다. 社會福祉事業費의 충분 정도(V32)는 교회의 사회복지예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예산 중 사

회복지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V30)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사회복지예산 비율(V33)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활동 예산이 많은 교회일수록 적정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활동 예산이 적은 교회일수록 적정한 사회복지 예산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表 4-64〉 社會福祉豫算과의 相關關係[1)]

	V18	V20	V21	V22	V32	V33
V30	.051	.034	.271**	.192**	.105	.323**
V18		.478**	.189**	.088	.209**	-.062
V20			.348**	.290**	.266**	-.004
V21				.624**	.154**	.189**
V22					.117*	.194**
V32						.039

註: 1) V30(사회복지활동예산 비율): 전체지출_____%로 기입
V18(사회복지시설 충분정도): 5점 척도(1-매우 부족...4-매우 충분)
V20(사회복지활동 인력 충분정도): 5점 척도(1-매우 부족...4-매우 충분)
V21(교인의 사회복지 호응도): 5점척도(1-매우 호응도가 낮다...4-매우 호응도가 높다)
V22(지역주민의 사회복지 호응도): 5점척도(1-매우 호응도가 낮다...4-매우 호등도가 높다)
V32(사회복지사업비의 충분정도): 5점 척도(1-매우 부족...4-매우 충분)
V33(적정한 사회복지비예산 비율): 1:2%이내 2:3～4% 3: 4～10% 4: 11～15% 5: 16% 이상

2) * p< .05, ** p< .01

2. 牧會者 特性에 따른 適正 社會福祉豫算 比率

목회자의 특성 중 성, 연령, 안수연수, 부임연수 및 전공과 적정 사회복지예산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表 4-65>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회자의 性 및 年齡만 적정 사회복지예산 비율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목회자보다는 젊은 목회자들이 사회복지에 적정한 예산을 더 높게 잡고 있었다. 30대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1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60%있었는데 반해, 40대는 52%, 50대는 51.7%를 차지하였다. 연령 이외에 목회자의 안수연수, 부임연수, 전공 등은 사회복지예산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 및 부임연수보다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表 4-65〉 牧會者 特性에 따른 適正 社會福祉豫算 比率

(단위: %, 명)

	10% 이하	11% 이상	전체	인원	χ^2
성					
남자	55.9	44.1	100.0	370	.476
여자	45.5	54.5	100.0	11	
연령					
30대	40.0	60.0	100.0	5	16.705***
40대	48.0	52.0	100.0	98	
50대	48.3	51.7	100.0	143	
60대 이상	69.6	30.4	100.0	135	
안수연수					
10년	51.1	48.9	100.0	176	3.433
20년	56.5	43.5	100.0	115	
30년 이상	64.5	35.5	100.0	62	
부임연수					
10년	55.1	72.2	100.0	272	14.078
20년	14.5	21.9	100.0	83	
30년 이상	26.9	5.9	100.0	26	
전공					
일반학	14.1	22.5	100.0	71	13.279
신학	20.2	26.0	100.0	258	
기타	18.6	27.9	100.0	43	

3. 敎人數 增減과 社會福祉 活潑性과의 關係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 활발성 정도와 信徒數의 變化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신도수를 나타내는 교세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교인수 증감과 사회복지 활발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한 추세에 있었지만,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교회에서 신도수가 증가하고, 사회복지활동이 저조할수록 신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6 참조).

〈表 4-66〉 敎人數 增減과 社會福祉 活潑性과의 關係(다시 分析)

(단위: %, 명)

	신도수 감소	신도수 동일	신도수 증가	전체
저조	79.3	57.5	44.8	55.4
보통	8.6	26.0	24.2	22.8
활발	12.1	16.6	30.9	21.8
계	100.0	100.0	100.0	100.0
(N)	(58)	(181)	(165)	(404)

χ^2=26.576*** *** p< .001

다음 <表 4-67>에서는 최근 3년간 교회의 교인수 증감과 敎人 및 地域住民의 社會福祉 呼應度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 및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교회일수록 교인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즉,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교인과 주민의 호응이 높을수록 교인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교인과 주민의 관심과 교세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활동이 간접적인 선교수단이 되어 교인수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表 4-67〉 敎人數 增感과 敎人 및 住民의 社會福祉 呼應度와의 關係

(단위: %, 명)

	교인의 호응도[2]	지역주민의 호응도[2]
교인수 증감[1]	.227***	.226***

註: 1) 최근 3년간 교인수 증가: 3점 척도(1=줄고 있다, 2=변화가 없다, 3= 늘고 있다)
2) 교인 및 주민의 사회복지 호응도: 5점 척도(1=매우 낮다....5= 매우 높다)
3) *** p< .001

4. 敎會의 社會福祉活動에 影響을 주는 要因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牧會者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社會福祉 專門家 유무, 敎人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關心 등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민경원, 1999; 서선희, 1997; 이계자, 1997).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10개의 요인을 獨立變數로 하여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을 從屬變數로 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목회자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도로 두 변수인, 교회 교인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권장정도(1=반대하고 있다, 2=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약간 권장하고 있다, 5=매우 권장하고 있다)와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본사명인 것에 대한 동의 여부(1=동의, 0=반대)를 선정하였다. 교회가 位置한 地域1, 地域2(1=대도시, 1=중소도시, 0=군지역), 교인수(지난주와 2주전 출석교인수 평균), 社會福祉 專門家 有無(1=있다, 0=없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 충분도(1=매우 부족하다, 2=부족하다, 3=보통이다, 4=충분하다, 5=매우 충분하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력 충분도(1=

매우 부족하다, 2=부족하다, 3=보통이다, 4=충분하다, 5=매우 충분하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教人의 呼應度(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地域社會住民의 呼應度(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보통이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이다.

회귀분석 결과는 <表 4-6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사회복지활동 활발성의 분산(variance)을 34% 정도 설명하고 있다(수정된 R 제곱).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목회자의 인식중 자원봉사활동 권장 정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1, 지역2, 사회복지사 유무, 사회복지활동에서 인력의 충분도, 교인의 호응도, 지역주민의 호응도였다. 자원봉사를 많이 권장하는 목회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일수록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教會의 位置로서 군지역 교회에 비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위치한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내의 社會福祉 專門家 유무가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사회복지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인력이 충분할수록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 교인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呼應度가 높을수록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表 4-68〉 敎會 社會福祉活動 活潑性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回歸分析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목회자 자원봉사 권장	.162	.064	.123*
봉사가 교회 사명(반대=0)	.001	.129	.028
대도시(군지역=0)	.432	.115	.197***
중소도시(군지역=0)	.348	.120	.152**
교인수	.001	.000	.053
사회복지전문가 유무(무=0)	.616	.173	.169***
시설 충분도	.117	.061	.100
인력 충분도	.178	.072	.137*
교인의 호응도	.177	.067	.168*
주민의 호응도	.181	.061	.180**
상수	1.484	.271	
F 값		17.508***	
R 제곱		.365	
수정된 R 제곱		.344	
사례수		315	

註: *** p< .001, ** p< .01, * p< .05

목회자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두 변수 중의 하나인 교회의 本質的인 使命에 대한 인지는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제와 봉사를 인지하고 있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간에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밖에 교세는 사회복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敎人數의 과다에 사회복지활동의 활발성 정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시설의 충분도는 사회복지활동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즉, 시설의 충분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회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중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이 밝혀졌다. 교회의 소재지로서 농·어촌 지역은 사회복지활동

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역에 소재한 교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사 유무도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는데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있을 경우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위한 인력이 충분할수록 사회복지활동은 활발하다. 이는 교세와는 별도로 사회복지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들을 말한다. 아울러 교인과 주민의 관심과 호응 또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第 6 節 實態調査結果 論議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현황에 대해서 교단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현재 우리 교회의 社會福祉 參與率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내의 사회복지 전문인력 없이 사회복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거나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은 장학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 경로장치, 양로원 방문, 빈민구조 등 一回性이거나 救護的인 것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의 受惠者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활발하여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關心과 呼應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호응도보다 낮았다. 따라서 교인들에게 사회복지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弘報와 인지도를 제

고하게 된다. 교인여부와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아직까지 교회들은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역주민에 開放함에 있어서도 교회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응답한 목회자들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하였고, 교회의 시설이나 인력의 부족,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교회의 財政的인 어려움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체 예산의 10% 이하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를 위해 적정한 예산은 전체 교회 예산의 4-10%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행히도 기장이나 구세군 같은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 사회복지를 적정 예산이 교회전체 예산의 16% 이상이어야 한다는 목회자도 상당수 있었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부족, 교인들의 무관심은 목회자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인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특히 교회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人的, 物的 資源이 갖추어져 있는 기관으로 목회자들은 교회가 보유한 인력과 자원으로 충분히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에서 교회들은 다른 교회나 公共機關, 社會福祉機關 등과의 關係가 긴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교회내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일반인의 참여율을 밑돌고 있고, 자원봉사활동도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한 전문가가 없고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다.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율에 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은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단별로 社會福祉活動 現況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교단별로 차이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구세군의 경우는 교인들의 호응도 더 높았고 인력이나 시설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재정비율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재정비율 면에서 다른 교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구세군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세군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타교단 교회들은 지역내의 구세군과 聯合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내의 교세(신도수) 증감과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할수록 신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의 호응도 및 주민의 호응도는 교세증감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교인 및 주민의 호응이 높을수록 교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즉,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것과 교인수의 증가와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社會福祉활동 活潑性에 影響을 주는 要因은 목회자의 인식, 교회의 위치,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인력충분도, 교인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호응도로 나타났다. 농촌교회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고, 사회복지전문가가 있는 교회

가 없는 교회보다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인력이 충분하고, 교인 및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을수록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牧會者가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해야 함은 물론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겠고, 사회복지를 전담할 專門人力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회들은 개별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역내의 타교회나 사회복지기관과 연합하여 활동을 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福祉財政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예산을 배정할 때 사회복지재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빈민이나 노인이 몰려있는 농어촌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소재한 교회보다 활발하지 못한 편이므로 農漁村 敎會에 대한 支援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미국의 교회사회복지활동 현황을 통해서 우리 나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第5章　美國敎會의 社會福祉活動[4)]

우리 나라 교회는 교회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사회복지활동을 연구하고 한국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미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고 그 事例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개념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 1 節　敎會社會福祉活動의 槪念

敎會社會福祉活動은 간단히 말한다면 교회라는 조직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Garland, 1993). 따라서 지역에 세워진 個敎會(congregational)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교회들의 연합체인 敎團的(denominational)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하여 협력하는 敎會聯合的(ecumenical) 프로그램, 등이 모두 교회사회복지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교회사회복지활동은 기독교사회복지활동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란 基督敎的 信念과 價値觀을 구

4) 본 장은 유장춘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침례교 목사)가 1999년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추계공개 강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현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이라면 모두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교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과 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모든 기독교인의 사회복지사업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은 교회사회복지활동보다 폭이 넓은 개념, 다시 말하면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활동을 타종교나 세속적 집단들과 비교하면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인구는 20%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교수의 60%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의 63.9%가 기독교인으로 보고되었고 사회사업 기관수에 있어서 개신교는 391개, 가톨릭은 180개인데 비해 불교와 원불교는 각각 9개와 57개에 불과했다(이원규d, 1994). 또 현재 사회복지기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社會福祉法人의 67%가 기독교법인이며(문화체육부, 1997,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신학교나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라는 사실(박종삼, 1992) 등이 한국 사회의 어떤 집단보다도 기독교인이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에 나서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한 편이 아니다.

개신교와는 달리 가톨릭교회는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가톨릭사회복지활동과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모든 복지활동의 중심에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가톨릭교회가 기독교 교회보다 사회일반으로부터 더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으며 敎會 成長率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이원규d, 1994).[5)]

5) 이원규 교수가 제시한 '한국 종교인 수와 그 변화'라는 제목의 표는 통계청에서 발

第 2 節　美國 敎會社會福祉活動의 歷史的 背景

초기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학대당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통치자들과 행정관료들, 고리대금을 취하는 지주들,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부자들을 저주하였다. 따라서 신대륙에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나타내는 나라가 건설되길 희망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거룩한 질서가 존중되고 지켜지도록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싸우기도 하였다(Leonard, 1988).

청교도들과 달리 퀘이커는 '內的 照明'(inner light)의 교리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철저한 평화주의자들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감옥을 개혁하며, 노예에 반대하는 평등주의를 고집했다. 울맨(John Woolman, 1720～1772)은 '내면적 宗敎, 외면적 奉仕'라는 퀘이커 정신으로 무장하여 노예제도에 도전하고 알코올의 문제들과 과중한 임대료, 전쟁, 물질주의 그리고 빈곤자의 폭발에 대하여 경고하여 큰 영향을 주었다(Leonard, 1988).

이와 같은 청교도의 정의정신이나 퀘이커의 평화사상과 같은 미대륙 개척교회의 정신과 사상은 오늘날의 미국 교회들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뿌리내려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바로 이러한 정신 위에 기초하여 성장하여 왔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역사를 보면 멀리 신약성서의 초대교회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까운 19세기 중반에 自願奉仕組織들의 자선조직화 운동과 인보관 운동으로부터 출발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운동들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출발이었으며 동

표한『198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와『1991 한국의 사회지표』, 그리고『1995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개신교 증가율은 35%, 천주교 증가율은 58.2%로 나타났다.

시에 專門社會福祉活動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1800년대에 생겨난 자선조직화 운동(COS)의 한가운데서 발생한 개신교의 자선적 활동들은 종교적 각성운동의 여파로 일어났는데 사회적, 선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을 위해 형성된 독립적 기구들이었다. 초기의 조직들은 超敎派的으로 다양한 개신교 교회들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점차 교파들도 각각 자신들의 기관들을 설립하였는데 이때는 傳導的 目的과 어떤 특정한 社會的 課題를 함께 완수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宣敎的 使役을 위해 전도지, 성경,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서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술취함, 음란, 도박, 외설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였다. 어떤 조직들은 가난, 가정, 학대, 장애 등과 같은 社會的 問題를 克服하기 위해 조직되었는가 하면 빈민생활, 실업과 미망인, 고아, 기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하였다.

역사학자 스미스(Timothy Smith)는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에 반발하면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국의 기독교는 빈곤, 노동자의 권리, 음주운전, 빈민주택, 인종적 혐오 등 순수한 社會的 爭點들에 대한 關心이 매우 빠르게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노예금지와 금주운동, 감옥개혁, 빈곤, 노동조건, 가족생활 등에 대한 수많은 운동들을 제시하였다.

1850년에 복음전도자 Phoebe Palmer는 뉴욕에 5개의 사회사업단(Five Points Mission)을 설립하면서 빈민지역에서 신교도의 機關宣敎가 시작되고 사회복지활동 전문직 발전의 온상역할을 하였다. Owen R. Lovejoy는 처음엔 목사였는데 후에는 중요한 사회복지활동 임원과 사회개혁자가 되었다. Jane Addams는 해외 선교직을 사양하고 인보관 운동의 선구적인 사회복지사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복지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한 예로 Moud Reynolds Meclure는 켄터기 루이빌(Louisville KY)에서 인보관을 시작하였고 1912년부터 침례교 여선교회 훈련학교에서 사회사업을 가르쳤는데 이 훈련학교는 나중에 남침례신학교의 카버 교회사회사업 학교(Carver School of Church Social Work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국의 교회사회복지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社會福音'(Social Gospel)이라는 주제이다. 1886년 아이오와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브라운(Charles O. Brown)이 처음으로 말한 이 용어는 신학자 라우쉔부시(Walter Rauschenbusch)에 의해 일반화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 사회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회복음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죄와 구속에 대한 집합적인 측면을 인식시키고 산업사회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교회는 "사회복지활동의 어머니"라고 할만큼 사회복지활동의 출발 시점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 사회복지활동을 길러낸 것은 인보관이나 학교, 또는 병원 같은 세속 또는 준세속적 기관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활동과 교회를 함께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교회와 사회복지활동간의 관계는 별로 순조롭지 않았다. 물론 협동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상호 무관심이나 경멸이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교회는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환경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第 3 節　美國의 敎會社會福祉活動 現況

미국의 全國社會福祉士協會(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 발행한『사회사업 대백과사전』의 '교회사회복지'항을 보면 NASW 회원 가운데 1991년 조사에 응답한 사회복지사 중 12% 이상이 종교환경에서 활동한다고 보고하고 있다(Gibelman & Schervish, 1993), 또 1991년에 교회는 약 66억 달러를 사회운동에 기부했으며(Filteau, 1993), 1991년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원봉사에 활용한 시간은 약 18억 시간이라고 하였다(Filteau, 1993). 이와 같은 수치는 미국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個敎會에서의 사회복지활동, 敎團에서의 사회복지활동, 그리고 地域社會내에서의 사회복지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 個敎會 次元의 社會福祉活動

개(個)교회는 종교적 목적으로 함께 뭉친 會衆集團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회집장소를 갖고 있다. 교회의 일차적 목적은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교회사회복지활동은 병원이나 학교에서의 사회복지활동처럼 이차적인 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사회복지활동은 병원사회복지활동이 환자를 치료하려는 병원의 목적을 돕고 학교사회복지활동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돕기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이라는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미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활동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 본질적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의 健全性과 그 目的 成就의 成功與否를 분별하는 척도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야고보서 2:26)"이라는 성서적 진리와 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미국 교회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의 특징을 설명한다면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사역자의 고용과 그 전문가를 통한 專門的 社會福祉活動 프로그램의 實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專門社會福祉士 雇用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과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회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상담 등의 전문적 활동들을 전개하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다(Garland, 1993). 교회사회복지사는 안수를 받고 社會牧師(social minister)로 임명되기도 하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회의 목회적 지도자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왓킨즈(Derrel R. Watkins, 1994)는 社會牧師의 役割이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상담가 또는 케이스 관리자(case manager) 역할을 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교육가, 훈련가, 기획자, 옹호자, 또는 치료자(therapists)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기획가나 조직가, 옹호자, 또는 자문가의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사회복지실천가로 일하며 목사이자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하였다. SBTS의 카버 교회사회복지활동 학교에서는 교회사회복지활동가의 역할을 기획자(planner), 중계자(broker), 자료제공자(resource provider), 평가자(evaluator), 그리고 제시자(presenter)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Carver School of CSW, 1985).

그들의 직무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목사(pastor), 상담가(counselor), 청소년 목사(minister of youth), 사회사업목사(minister of social work), 노인목사(minister of senior adults), 지역사회목사(community minister), 사회목회담당자

(director of social ministry), 지역사역목사(minister of community ministry)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Bailey, 1988; Gill, 1995).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에서 일하는 社會福祉士의 位置가 아직은 확실히 설정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갈랜드(Diana L. R. Garland)는 교구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공식적인 직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자아정체감과 회중과 교회의 다른 직원들에 의해 부여된 신분 사이에서 큰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Toler, 1992). 그러나 미국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함께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指導的 役割을 하며 목회팀의 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 社會福祉 프로그램

개교회에서 교회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개발되고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다. 兒童들을 위한 委託保護 서비스, 중요한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는 교육과 집단활동, 방과후 활동과 개인지도 프로그램, 老人들을 위한 성인 晝間保護와 주거 프로그램, 浮浪人 가족들을 위한 숙소와 급식프로그램, 시골지역에서의 貧困家族과 노인들의 의료적 돌봄을 위한 교통서비스, 직장 훈련과 알선, 자조집단과 교육집단을 위한 프로그램, 긴급구조, 공공어린이보호서비스와 가족보호를 위한 물질적, 사회적 지원, 移民者와 탈출 망명자를 위한 지원과 보호활동, 빈곤가족을 위한 주택건설과 수리, 십대부모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친교와 자문활동 프로그램, 감옥과 소년원 재소자들을 위한 활동, 위탁보호와 입양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민단체들의 옹호활동을 포함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와 전국적 기관들, 정부를 위한 목소리가 되기도 한다(Garland,

1993, 480; Bailey, 1993; Ferguson, 1992).

켄터키주 루이빌시에 있는 월넛스트릿 침례교회는 주일 낮 참석인원이 약 700여명 정도 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배당 옆에 약간 큰 가정집 정도의 부속건물에 "Christian Social Ministry"라는 간판을 걸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센터의 책임자는 神學과 社會福祉를 專攻한 전문사회복지사로서 사회목회를 전담하여 이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교회에서 부담하는 資源은 시설을 제공하고 책임자의 월급 정도이다. 그러나 이 교회 예배당 뒤에 안내 테이블에는 녹색봉투가 놓여 있어서 이 봉투로 헌금하는 돈은 모두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으로 활용된다. 또 일년에 한두 번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합하여 모금 행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들을 위해 활용한다. 이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자원봉사자로 이 센터에서 時間制 活動을 실천하고 있으며 구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헌납하기도 한다.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료품 제공, 직업알선, 중고 의료품 및 가정용품 제공, 빈곤가정을 위한 재정적 도움, 적절한 서비스와의 연계서비스, 심리상담, 청소년 지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敎團的 次元의 敎會社會福祉活動

교회사회복지활동에는 교단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機關과 施設들이 포함된다. 교단이 개입하는 사회복지활동은 지역교회에서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경우 그리고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크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Garland, 1993). 그런 일에는 빈곤자, 부랑인, 아동학대 등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한 硏究 指針, 결혼과 부모교육을 위한 實踐 指針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위한 자료 개발, 아동에 대한 住居保護나 治

療프로그램, 무주택자들이나 가족들과 십대 임신부 그리고 학대당한 가족들을 위한 숙소, 지역에 근거한 가족서비스 기관들, 전문적 로비 활동과 政府立法 監視委員會, 노인 가족을 위한 주택과 급식 그리고 위탁보호와 社會化 프로그램, 입양과 위탁보호 기관들, 병원들, 망명자 정착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의 재해와 기아 救助機關 등을 운영하는 경우들과 함께(Bailey, 1988; Garland, 1993), 더 나아가 사회정의와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옹호활동과 사회행동,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대체로 남침례교나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등과 같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對人的 社會福祉活動를 주로 하고 있지만 성공회, 연합장로교회, 연합감리교회 등과 같은 진보적인 교단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構造的 社會福祉活動를 주로 한다. 따라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회중 중심의 사업을 전개한다면 진보적인 교단들은 지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엘리트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여준다(Kelly, 1972). 이러한 사실과 함께 한 가지 흥미있는 보고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의 신도들의 46%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통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진보적 교회들의 신도들은 불과 23%만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통계자료이다(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1983:217). 다음에 제시되는 두 교단의 활동 양상은 앞에 설명한 보수교단과 진보교단의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사례 1: 미국 남침례교 국내선교부의 교회와 지역사회사역[6]

미국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산하에는 해외선교부와 북미선교부가 있는데 국내선교부 산하에는 교회와 지역사회사역부(Church and Community Ministries)가 있어 교단적 차원에서 다양한

6) 남침례교 총회 북미선교부(North American Mission Board)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namb(1999. 10. 26.)에서 정리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文盲사역: 성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충분히 문자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교회와 지방회의 문맹퇴치사역을 지원하고 직원을 훈련시킨다.

② 障碍人사역: 미국에 3600만 장애인들을 위해 교회의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각, 청각, 신체, 정신 등 각 종류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교회에 제공한다.

③ 健康保護사역: 90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지방회, 주총회에서 건강보호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④ 生命을 위한 대안: 임신보호센터(Pregnancy Care Center)를 통하여 위기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돕고 낙태 결정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활동한다.

⑤ 教會週中사역: 주중에 교회의 시설을 개방하여 유아들을 위한 낮 보호시설, 방과후 활동, 클럽활동, 레크리에이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돕는다.

⑥ 犯罪矯正사역: 감옥과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원자 개발, 상담, 고용, 주택, 위기관리, 긴급구호, 개인지도, 문자교육 등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이 일을 위한 직원들을 훈련한다.

⑦ 갱사역: 도심지의 빈곤, 실업, 마약, 범죄가 만연한 지역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⑧ 無住宅者사역: 점점 늘어나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숙소제공, 예방사역 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방법들을 지역교회에 제공하고 돕는다.

⑨ 飢餓와 貧困: 주총회와 지방회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아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급식 프로그램들을 실천하며 빈곤탈출을 한 교육과 훈련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돕는다.

⑩ 국내 飢餓基金: 위의 사역을 위해 기금이 설립되어서 각 지역의 기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급식 사업을 설립하며 기아인구를 줄이는 개발사역에 투자한다.

⑪ 移民과 脫出者사역: 외국인의 정착을 위하여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전개한다.

⑫ 移住者사역: 위의 사역과 별도로 이주자들과 계절적 농장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착취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필요에 대응하는 사역이다.

⑬ 住居사역: 중독자들의 장기 재활을 위해서 그리고 무주택자의 기본적인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거사역이다.

⑭ 藥物濫用을 위한 사역: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그 밖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역교회와 지방회를 돕는다.

사례 2: 미국 연합감리교회[7)]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교단적 활동은 '행동하는 신앙'(Faith in Action)이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宣敎와 奉仕에 참여한다는 정신 아래 그들은 다섯 가지 중점적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는 선교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고, 둘째는 平和와 正義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人種差別과 性差別을 극복하고, 넷째는 보다 큰 敎會一致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섯째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다. 이들 중

7) 이 내용은 인터넷 http://www.umc.org의 내용 중에서 사회봉사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 정리함.

에서 셋째까지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봉사적 사역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첫째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宣敎事業들(Making a Difference Through Missions)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救護를 위한 연합감리교 위원회의 활동(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 발칸사태, 콩고공화국의 변란, 동티모르 위기, 엘리뇨, 아프리카의 아동, 태풍, 화산, 북한의 기아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긴급대처(Emergency Response) 활동과 세계 기아와 빈곤을 구조하기 위한 식량원조사업과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탈출 난민과 이민자의 원조사역 등이 포함된다.

② 保健과 福祉사역(Health and Welfare Ministry): AIDS 퇴치사역, 교회적 보건사역, 장애관련 활동, 의약품 원조사업 등이 포함된다.

③ 地域社會와 機構的 사역들(Community and Institutional Ministries): 교회에 근거한 공동체 사역과 선교기관들을 돌보는 사역 그리고 지역에 근거한 공동체들을 돕고 소외계층을 옹호하는 사역이 포함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폭력과 갈등의 해소, 중재, 어린이 보호활동, 지역사회 센터 운영, 고용기회 창출, 교구협력사업 자문, 연합회 활동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平和와 正義를 위한 행동(Acting for Peace and Justice)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실현함으로서 인간애를 구현하는 활동이다. 이 사역의 영역은 지역적인 것으로부터 국제적인 범위까지 매우 다양하다. 교단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원리들을 연구하고 결정하며 옹호해야할 이슈들을 발굴하고 개교회와 연합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 국가연합을 통한 사역과 교육활동, 자료의 개발 등의 활동들을 전개한다.

셋째로 性差別과 人種差別을 克服(Overcoming Racism and Sexism)하는 사업들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교육시키며, 행사들을 개최하며 사회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리고 사회의 이런 차별적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법과 여론을 동원하여 약자들을 보호하는 옹호적 활동을 전개한다.

3. 地域社會次元의 福祉活動

미국에서는 도시지역의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地域社會의 特定한 欲求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교회묶음(church clustering) 또는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ies)이라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相互信仰的(interfath)인 기운이 형성되면서 대도시, 소도시, 시골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위락지역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67년에 소폴크카운티 사역(Ministries of Suffolk County)이 설립된 후[8] 비슷한 성격의 기관들이 여러 곳에 생겨났고 1981년에는 켄터키 루이빌시에 협의회가 조성되어 사역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협의회들이 여러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야 확인하였다. 그래서 1988년에는 이러한 지역사회 사역들이 서로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이들 프로젝트들은 어떤 중심적인 기구나 세력이 주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생겨나 정체감을 확인한 후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이었다.

현재 루이빌의 교회들은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13개로

8) 이 기관은 초기에 생긴 지역사회사역들 중에 하나로 보임.

분할하여 각 지역마다 하나의 지역사회사역을 세워 각자의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13개의 기관이 하나의 연합회를 조직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1 참조).[9] 이러한 운동의 특징은 지역에 근거한 그리고 지역을 위한 교회들의 초교파적 연합이라는 데에 있으며(Bos, 1993), 이와 같은 지역성(locality)과 초교파성의 연합은 여러 교회가 하나의 敎區를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형태의 교회연합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협력한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심각한 교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연합운동과 관계없이 진보, 보수교단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런 기관들의 典型的인 事業은 긴급부조, 음식공급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방과후 클럽, 편부모 집단, 알코올중독자 모임, 그리고 모든 연령집단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고용되어 개인과 가족, 집단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조정·감독하며, 지역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Bailey, 1988).

이와 같은 敎會와 機關의 體系는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장점을 갖게 된다. 교회들은 비전문적 구제 또는 자선사업을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개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교인들 또는 이웃주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이 기관을 통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과 평판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9) 1988년에 나온 저널에는 6개의 사역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Bailey, 1988: 286), 1995년에 수집된 홍보지에는 13개의 기관이 명단에 올라 있었음. 이것은 일년에 하나 이상의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5-1] 루이빌市 13개 地域社會 使役機關 地圖

한편 지역사회사역 기관은 교회들을 통하여 財政的 支援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교인 회중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리고 높은 동기를 소유하고 있는 질 높은 자원봉사자들의 人力資源을 비축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로 理事陣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지역사회 스스로 결정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들이 이 기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자신이 돈을 내고 자신이 일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전문사회복지활

동의 중요한 가치가 자연히 성취되는 이상적인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베일리는 이 지역사회사역이 가지고 있는 危險性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일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은 교회연합적 활동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버림으로써 교회들 또는 교인들이 스스로 또는 개별적으로 실천해야할 기독교인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적 양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재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관과 교회들과의 연계선상에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부담스러움도 제한점으로 제시되었다(Bailey, 1992).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업은 교회의 단합된 모습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Bos, 1988). 또 이 지역사회사역은 지역사회의 相互支持와 資源分配, 그리고 중점적인 戰略의 開發을 위하여 주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과 함께 영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속적인 사회복지활동기관들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第 4 節　美國 敎會 社會福祉士 養性過程

미국교회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하는 일군을 양육하는 敎育課程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본다. 미국 교회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나누어 세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牧會學 碩士과정에서 교회사회복지활동에 관련된 과목들을 일정한 분량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목회자(Pastor)가 될 사람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에 대해 개론적인

지식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사회목회개론(Introduction to Social Ministries), 교회와 지역사회(Church and Community), 교회사역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론(The Community Context for Church Ministry), 종교와 사회변동(Religion and Social Change), 지역사회에서의 교회행동(Church Action in the Community) 등과 같은 과목들이다.

둘째는 神學을 爲主로 하고 사회복지를 부전공으로 하는 社會牧會者(Social Minister)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보통 3년 과정으로써 2년 동안 약 60학점 정도의 신학과목을 공부하고 30학점은 사회복지의 다양한 전공과목들을 공부하게 하는 체제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졸업할 때의 학위는 기독교사회목회 전공 목회학석사(Master of Divinity in Christian Social Ministry: M. Div. in CSW) 학위가 수여된다.

셋째는 社會福祉學을 주로 하고 신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敎會社會福祉士(Church Social Worker) 양성과정이다. 이것은 교회를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하나의 임상적 분야로 설정하는 개념으로서 1년 동안은 신학을 약 30학점 정도 공부하게 하고 2년 동안은 전문사회복지 전공과목들을 60학점 또는 45학점 정도 공부하게 하는 과정으로 짜여진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MSW 학위와 함께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第 5 節 韓國的 適用을 위한 提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교회사회복지활동은 個敎會와 敎團, 그리고 敎會聯合的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사회복지적 특징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교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목회 전문가가 고용되고 공동목회의 팀의 한 멤버로서 참여하여 전문적

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교단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를 관장하는 특별부서가 교단마다 설치되어 범세계적 차원에서 단위 지역사회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구호적 봉사와 사회구조적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근거하여 교회가 서로 연계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요약하자면 전문화와 연대성이라는 두개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미국의 교회사회복지활동으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이 두가지, 즉, 專門化와 連帶性의 强化라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자선사업이나 구제사업의 수준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고용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간혹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고용되어있다 해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회사회복지활동이나 교회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교회사회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비전문적 사회봉사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 왔으며 그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專門的 知識과 價値觀, 그리고 技術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회사회복지활동도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복지자원의 결여와 교회사회복지 전문인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는 敎會連帶性의 강화에 있다고 본다. 전문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어느 정도 재정적 힘이 있는 교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한국교회의 절대 다수는 교회를 유지하고 담임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일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교회사회복지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신학과 사회복지학 양 분야에 대한 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교회의 지역사회사역(community ministry)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개교회의 제한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지역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연대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개교회 중심적인 敎會成長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적 조직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성장에 대한 필연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성장이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때에 내면적 성장, 영적 성장, 그리고 관계적 성장을 포함하는 총체적 성장(wholistic growth)은 불가능해 진다. 여기서 關係的 成長이란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 이웃교회와의 관계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 교회의 내면적, 영적 성장을 측정하게 하는 바로메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사역을 위한 협력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대적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보다 자세한 우리 나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6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第 6 章　教會의 社會福祉活動 活性化 方案

본 연구는 교회의 사회복지 보유자원, 즉,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적자원과 교회의 사회복지 재정액 등을 파악하여 기독교의 복지참여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별로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에 있어서 눈에 띌만한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유무, 사회복지 수행상의 어려운 점, 전체 예산 중의 적당한 사회복지비의 비율 등이 10년 전과 비슷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회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기독교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명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된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의 傳達部門이 될 것이다. 물론, 교회가 사회복지를 수행하면서 자원조달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부터 자원을 지원 받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회는 국가 부문이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대상층에 대한 補助的 서비스를 提供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래의 제언들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敎會社會福祉 專門家 導入 및 養性

본 연구에서 기독교의 복지활동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교회가 사

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할 專門人力을 確保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교회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90% 이상의 교회가 복지전문가가 없고 목회자나 선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복지를 전공한 목회자 양성이 시급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대형교회의 부목사나 담임목사들의 사회복지 대학이나 기관에서의 재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전공자를 통해서 교회내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문화하게 되면 地域社會의 欲求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게 하며 個別的 介入으로부터 集團活動, 地域社會 組織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인 전도와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계통의 학교 또는 신학교에 설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복지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 가장 주된 요인이

교회사회복지 전문가를 배출해도 고용이 되지 않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먼저 신학교들과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가령, 교회사회복지 전문직을 認證하는 協議體와 거기에 맞는 敎育프로그램, 그리고 신학적인 소양과 사회복지 전문성의 소양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사회복지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통해서 교회들은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량에 맞게,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교회의 사회복지 분야는 발달될 것이다.

2. 牧會者의 社會福祉活動 實踐 및 自律性 提高

교회에서 구제와 사회봉사를 본질적인 사명으로 보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사회봉사활동을 단순한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救濟와 社會奉仕를 교회가 담당해야 할 基本使命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속된 교회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소속교회에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기존 연구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김인숙, 1998:64; 성규탁, 1991:265, 289). 이들에 대한 意識

變化를 위한 교육은 여러 시기에 강화시킬 수 있지만 그들이 대학교에 재학중일 때 받는 신학교육 커리큘럼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들에게 사회복지개론을 필수과목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사고시에 이러한 과목을 첨가시킬 수 있다면 목회자들의 의식전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단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단은 자체교육기관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지역사회 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 의의, 실천방법 등에 대한 敎育의 機會를 부여하여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자연히 교인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도 변하여 사회복지활동 인력과 재정적 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牧會領域의 分業化와 自律性을 보장하는 교회의 조직적 토양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교회에서는 공동목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현재와 같이 교회의 종적이고 관료적인 경직된 조직적 풍토에서는 사회목회자가 사회목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교회에 사회복지전문가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敎會 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優先順位 賦與 및 豫算擴充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회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경험적 조사들에 의하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회복지활동은 별로

활발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회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지만 동시에 복음전도보다 사회복지활동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위에 두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가 전도와 같은 비중으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한다면 복음사역을 담당하는 인력과 함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봉사에 대한 우선순위는 전도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하위에 두기 때문에 봉사적 사명은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난 후 남는 여력으로 하게 되는 현실이다.

또한 교회가 봉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아 자연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약해지고 있다. 본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출되는 豫算은 매우 열악하다. 무려 76.4%의 교회가 예산의 10% 미만만을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87.6%가 사회복지 사업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소한 사회복지예산을 교회 총 예산의 10%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4. 敎會間 協力體系 構築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個敎會 중심성에 대한 부분적 시정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協力網의 强化가 필요하다. 노치준(1995)은 한국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個敎會主義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個敎會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협력망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의뢰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겠다. 목회자들도 너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 역할 갈등을 느끼게 되고 목회자의 역할수행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이원규, 1999).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교회간의 협

력관계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다양한 교단 교회들간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教會 組織의 變化가 필요하다(류태선, 1998).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한 지역사회 선교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당회의 개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예수교 장로회는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당회에서 결정하는 데 이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목회의 운영에 평신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히 사회복지활동에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원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합하여 분야별로 복지 프로그램을 분담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활발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민경원, 1999). 교세나 재정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그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도시 교회들은 老人과 貧民이 몰려있는 농·어촌지역 교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농·어촌교회들은 스스로 자립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세에 있어서나 재정 면에서 매우 역부족인 상태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대형교회들은 이러한 농·어촌지역교회와 結緣을 맺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에 필요한 資源들을 支援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社會福祉活動의 制度的 活性化

우리 나라의 교회는 지역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교회의

기본사명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활동의 진정한 대상은 地域社會住民이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교인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활동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회의 인적, 물적, 시설자원을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활용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회복지활동에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회내 혹은 상위조직에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물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예산의 일부를 사회복지활동에 할애하는 방법보다는 사회봉사에 쓰이는 예산을 정기적인 헌금 및 기금설립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물적자원의 활용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시설 면에서 우리 나라의 교회는 자체건물(교회당, 부속건물)을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 몇 시간의 예배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 가능한 교회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서선희, 1997).

또한 교회내의 인적·물적자원의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특히 본예배당을 포함한 교회의 봉사관과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각 교회는 교회 반경 약 1Km 정도 지역에서 해당 주민들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교회내의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회 내의 활동에만 활용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福祉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진정 주민들의 짐을 나누어 갖는 참 교회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강인철, 「가톨릭 신자들의 사회복지의식-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가톨릭사회복지의 전망』,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1996.

권경임, 「불교 정단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강화 방안」, 『한국불교 사회복지 총람』,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999.

권순원,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pp.53～63.

김미숙·김유경·김성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영모, 『사회복지학』,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겨울호, 1998.

김인숙·최해경·이선우,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실태와 전망』,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연수회 자료집, 1997.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남세진, 『인간과 복지』, 서울: 한울, 1992.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민경원, 「교회사회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도시 교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활동」, 이삼열(편), 『사회 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p.174～193.

박창빈,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장로교(예장통합)를 중심으로」, 이삼열(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pp.263～276.

백종만, 「국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의 역할」, 남세진(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쟁점과 대안』, 서울: 나남, 1995, pp.127～143.

_____, 「해방50년과 남한의 민간복지」, 『상황과 복지』, 창간호, 1996.

복지개혁백서편찬위원회,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복지개혁』, 1997.

서선희, 「한국교회 사회복지정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오정수, 「우리나라 민간복지 부문의 기능과 구조 개선방안」, 『사회복지』, 1998, 봄호, pp.40～52.

이계자,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선우,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비영리기관의 역할 확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1998, pp.46～81.

이원규(a),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목회와 신학』, 2월호, 1999, pp.148～156.

_____(b),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6.

_____(c),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_____(d),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교회사회봉사총람』, 서울: 한국장로회 출판사, 1994, pp.232～249.

이혁구, 「복지공급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기원 외, 『민간복지투자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pp.76～91.

정경배, 「IMF 시대의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 『사회복지』, 1998, 겨울호, pp.7～25.

정무성,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1998, 봄호, pp.4～13.

_____, 「종교사회복지의 반성과 전망에 관한 토론」,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창립 심포지엄 논평, 1999.

조흥식(a), 「대량실업에 따른 민간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1998, 여름호, pp.7～19.

_____(b), 「종교사회복지활동의 방향과 과제」, 종교와 사회복지 심포지엄 기조강연, 1998.

최 균,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1995.

최원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종교연감』, 1994.

Bailey, Patricia Lawson(a), "Social Work Practice with Groups in the Church Context: A Family Life Ministry Model in an Inner-city Church", *Social Work with Groups,* 16(1～2), 1993, pp.54～67.

_____(b), "Social Work Practice in Community Ministries", D. R. Gerland(ed.), St. Davids,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1992, pp.58～65.

_____(c), "Southern Baptist Programs of Church Social Work", *Review & Expositor,* 85, No.2. Spring 1988, pp.284～290.

Bendick, Marc Jr. "Privatizing the Deliver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 Idea to Be Taken Seriously"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97～120.

Bos, A. David, *A Practical Guide to Community Ministry,* Louisville, KY: Westminister/ John Knox Press, 1993.

_____, "Community Ministries: The Wild Card in Ecumenical Relations and Social Ministry",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25, 4, 1988, pp.592～598.

Brodkin, Evelyn Z. and Dennis Young "Making Sense of Privatization: How Can We Learn from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21～156.

Carver School of Church Social Work Practice, *Curriculum Conceptualiz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Louisville, KY: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3.

Esping-Anderse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Ferguson, J., "The Congregation as Context for Social Work Practice", D. R. Gerland(ed.), St. Davids,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PA: 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s in Social Work, 1992, pp.36～57.

Garland, Diana R.(a), *Church Agencies: Caring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Crisis,*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1993.

_____(b), *Church Social Work,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1993.

Gilbert, Neil, and Gilbert, Barbara, *The Enabling State: Modern Welfare Capitalism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Gilbert, N., Specht, H., Terrell, P.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3.

Gill, Rachel, On "Wings of Ministry", *Missions USA,* July-August 1995, pp.32～42.

Heckscher, G., *The Welfare State and Beyond: Success and Problems in Scandina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Heclo, H., "Toward a New Welfare State?" in P. Flora and J. J. Heidenheimer(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1982.

Hefferman, J., Schuttleworth, G., and Ambrosino, R.,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An Introduction,* 2nd ed.,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92.

Johnson, N.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Brighton, Sussex: Wheatsheaf, 1987.

Kelly, Dean M.,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A Study in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Leonard, Bill J., "The Modern Church and Social Action", *Review & Expositor,* 85, No.2., Spring 1988, pp.243～253.

Mishra, Ramesh, *The Welfar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Policies of Retrenchment and Maintenance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ia,* N. Y.: Harvester Wheatsheaf, 1990.

O'Connor, J.,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St. Marin's, 1973.

OECD, *The Welfare State in Crisis,* Paris: OECD, 1981.

Salamon, L. M., "The Marketization of Welfare: Changing Nonprofit and For-profit Roles in the American Welfare State", *Social Service Review,* 1993.

Starr, Paul "The Meaning of Privatization" in Ka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p.1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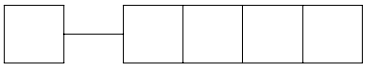
Toler, Pamela Ganey, *Parish Social Work and Direct Practice with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Louisville, KY: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nd Training in Church Social Work, 1992.

Watkins, Derrel R., *Christian Social Ministries,*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Wilensky, H. L.,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附　錄

附錄: 調査票



교회 사회복지활동 실태조사

귀 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무총리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올해 기독교계의 복지참여 현황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는 기독교계 7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담임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교회들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애로사항, 자원봉사활동 등을 파악하여 교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님들**의 의견은 교회가 보다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교회의 복지참여에 관한 정책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고, 절대로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부디, **저희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정경배
책임연구원 김미숙 (공동연구자: 이만식)
전화: 02-354-8003 (228) 팩스: 02-356-2840
주소: 122-705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e-mail: mskim@kihasa.re.kr

교회명		전화번호	
교회소재지	시(도)	시(군・구)	동(읍・면)

※ 다음의 문항들을 읽으시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하나만 골라 각 번호 앞의 박스(□)에 ∨로 체크 혹은 해당란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Ⅰ. 고회 일반

1. 귀 교회는 몇 년에 설립되었습니까? 19____ _____년

2. 귀 교회는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광역시 □ ③ 시지역 □ ④ 군(읍·면)지역

3. 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주거지역 □ ② 상업지역 □ ③ 공업지역
□ ④ 농업·어업·광업지역 □ ⑤ 혼합지역

4. 귀 교회가 위치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상층 □ ② 중상층 □ ③ 중하층 □ ④ 하층

5. 귀 교회의 교파는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측) □ ②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측)
□ ③ 한국 기독교 장로회 □ ④ 기독교 대한 감리회
□ ⑤ 기독교 한국 침례회 □ ⑥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 ⑦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 ⑧ 구세군 한국 본영

6. 귀 교회는 지난 2주간 대예배 출석교인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1) 지난주 _____명
(2) 2주 전 _____명

7. 귀 교회의 최근 3년간의 신도수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 ① 줄고 있다 □ ② 변화가 거의 없다 □ ③ 늘고 있다

8. 신도수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일반적인 추세일 것이다.
□ ② 본인의 설교가 좋아서(나빠서)
□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않기) 때문에
□ ④ 지역사회의 인구가 갑자기 늘었기(줄었기) 때문에

II. 교회의 사회봉사활동

9. 귀하는 “구제와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동의하지 않는다 □ ② 동의한다

10. 귀하는 우리 나라 전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저조하다 □ ② 저조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활발하다 □ ⑤ 매우 활발하다

11. 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활동은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저조하다 □ ② 저조한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활발하다 □ ⑤ 매우 활발하다

12. 다음 활동 중에서 귀 교회가 시행하는 활동이 있으면 실시여부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교회교인 및 일반인 봉사자), 유급직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동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아동	① 어린이선교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유아원, 유치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아동보호시설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어린이집, 탁아소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입양과 결연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⑦ 공부방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⑧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청소년	① 장학사업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소년소녀 가장돕기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독서실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청소년 상담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청소년 선도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야학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⑦ 직업알선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⑧ 문화활동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⑨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3)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노인	① 양로원방문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불우노인 무료식사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경로잔치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노인정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노인대학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취업 및 부업알선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⑦ 양로원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⑧ 노력봉사 (빨래, 청소)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⑨ 도시락, 반찬배달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⑩ 기타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4)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장애인	① 수술비 보조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취업알선 및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보장구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가정상담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노력봉사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기타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5) 여성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여성	① 미혼모시설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모자원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주부교실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직업훈련 및 알선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6) 실직자 및 노숙자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실직자 및 노숙자	① 노숙자 숙소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노숙자 식사 제공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직업훈련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직업안내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재정 후원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7)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실시여부, 수혜인원, 자원봉사자수, 유급직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프로그램명	1. 실시여부	2. 수혜인원	3. 자원봉사자수	4. 유급직원
지역주민	① 빈민구호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② 의료봉사 및 진료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③ 이재민 구호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④ 병원방문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⑤ 노동상담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⑥ 법률상담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⑦ 신용협동조합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⑧ 농산물 공동구매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⑨ 성인교육, 한글학교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⑩ 주민 도서실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⑪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 명	교회교인:_____ 명 일반인: _____ 명	_____명

13. 위에서 표하신 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기독교 교인만 ☐ ②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13-1로 갈 것)** ↓

13-1. 귀 교회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 '이용자 전체를 10으로 했을 때, 교인과 지역주민의 이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인 대 지역주민: _____ 대 _____ (총 10) **[예 - 7 대 3]**

14. 귀 교회에는 사회복지부문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전문가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5. 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주로 누가 담당하십니까?

☐ ① 목회자 ☐ ② 사회복지분과 (부목사 및 사무직원)
☐ ③ 사회복지전문가 ☐ ④ 선교회
☐ ⑤ 일반교인 ☐ ⑥ 기타 ( )

16. 귀하의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할 유급 사회복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 ② 필요없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17. 귀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교회 및 부대시설 ☐ ②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③ 기타 ( )

18. 귀하의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19. 귀 교회는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시설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고아원 등) □ ② 청소년복지시설
□ ③ 노인복지시설 □ ④ 장애인복지시설
□ ⑤ 여성복지시설 □ ⑥ 부랑인복지시설
□ ⑦ 사회복지관 □ ⑧ 기 타 ( )

20. 귀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21. 귀 교회 교인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호응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호응도가 낮다 □ ② 호응도가 낮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호응도가 높다

22. 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호응도가 낮다 □ ② 호응도가 낮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 ⑤ 매우 호응도가 높다

23.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명을 가지고 꼭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활동을 두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분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동복지 □ ② 청소년복지 □ ③ 노인복지
□ ④ 장애인복지 □ ⑤ 여성복지/가족상담 □ ⑥ 지역사회복지
□ ⑦ 특수소외계층복지(실직자, 노숙자, 부랑자, 탈북자, 외국인노동자 등)
□ ⑧ 기타 복지( )

24. 귀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을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있는대로 선택)**

□ ① 교회 내의 광고 □ ② 관공서나 복지기관에 알림
□ ③ 지역사회에 포스터 이용 □ ④ 지역신문 및 지역뉴스레터에 게재
□ ⑤ 매스컴 및 인터넷이용 □ ⑥ 교인을 통한 홍보
□ ⑦ 기타 ( )

25. 귀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전혀 필요없다 □ ② 별로 필요없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26. 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홍보비의 부족 □ ② 교인의 무관심
□ ③ 지역주민의 무관심 □ ④ 홍보매체의 부족
□ ⑤ 홍보기술의 부족 □ ⑥ 기 타 ( )

27. 귀 교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보기:
① 교회재정문제(예산부족) ② 지식과 기술부족
③ 교회시설 및 공간부족 ④ 신자들의 인식부족
⑤ 지역주민들의 호응부족 ⑥ 관공서의 행정절차 복잡
⑦ 당회가 사회복지사업에 소극적 ⑧ 어려움 없음
⑨ 기타( )

28. 귀 교회가 사회복지활동 프로그램을 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 ②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③ 실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지식
□ ④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지식
□ ⑤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 ⑥ 기타 ( )

29. 귀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재정은 주로 어디에서 충당됩니까? 비중이 가장 큰 것 2개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교회헌금 □ ② 정부지원금 □ ③ 개인 후원금
□ ④ 공동모금 □ ⑤ 노회 지원 □ ⑥ 총회(총본영) 지원
□ ⑦ 민간단체 지원 □ ⑧ 기타 ( )

30. 1998년도에 귀 교회 지출에서 사회복지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전체 지출을 100%로 했을 때 몇 퍼센트나 되나요? 비율: 전체지출의 _____%

31. 1998년도에 구제 및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특별헌금 혹은 모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31-1로 갈 것) ↓** □ ② 없다

31-1. **(31번의 '① 있다'의 경우만)** 다음 중 어떤 목적으로 특별헌금 혹은 모금을 하셨는지 해당 사항 모두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수해구호헌금
□ ② 연말연시 특별구호헌금
□ ③ 사회봉사주일헌금
□ ④ 외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방문 및 지원
□ ⑤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립비 및 운영비
□ ⑥ 장학사업
□ ⑦ 직접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 ⑧ 기타 ( )

32. 귀 교회에서 작년에 사용하신 사회복지사업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약간 부족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33.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예산은 총 예산의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 이내 □ ② 3%～5% 이내 □ ③ 5%～10% 이내
□ ④ 11%～15% 이내 □ ⑤ 16% 이상

34.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지지 □ ②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 ③ 인적 지원 □ ④ 전문인력 지원
□ ⑤ 물적 지원 □ ⑥ 기타( )

35. 귀 교회는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내의 타교회와 관계는 있습니까?

□ ① 매우 소원한 관계 □ ② 약간 소원한 관계
□ ③ 부분적인 협조관계 □ ④ 긴밀한 협조관계

36. 귀 교회는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해서 지역내의 공공기관(구청, 경찰서, 정부부처 등)과의 관계는 있습니까?

□ ① 아무 관계없음 □ ② 심한 갈등관계 □ ③ 약간 불편한 관계
□ ④ 부분적인 협조관계 □ ⑤ 긴밀한 협조관계

37. 귀 교회는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에게 교회를 개방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8. 귀 교회에는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38-1로 갈 것)** ↓ □ ② 아니오

38-1. (**38의 '① 예'의 경우만)**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입니까?

_____
_____
_____
_____

III. 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교인 및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교회내외의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39. 귀 교회에서는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0 페이지의 D1로 갈 것)**

40. 귀 교회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1. 귀 교회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① 최근 1년 이내 □ ② 5년 전
□ ③ 6~10년 전 □ ④ 11년 전 이상

42. 귀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신도수는 월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 ① 10명 미만 □ ② 10-20명 미만 □ ③ 50-100명 미만
□ ④ 100-200명 미만 □ ⑤ 200-500명 미만 □ ⑥ 500명 이상

43. 교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인들이 시간내기가 어렵다
□ ② 교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③ 지역사회 내에 주민과 연계가 쉽지 않다
□ ④ 교회예산이 부족하다
□ ⑤ 교회의 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다
□ ⑥ 별 어려움이 없다
□ ⑦ 기 타 ( )

44.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에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교회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된다
□ ② 지역사회주민이 교회에 대해 좋은 인식을 하게 된다
□ ③ 교인들의 신앙훈련에 도움을 주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④ 교회의 홍보나 전도에 도움이 된다
□ ⑤ 기 타 ( )

45.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귀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유지 및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그저 그렇다
□ ④ 약간 도움됨 □ ⑤ 매우 도움이 됨

46. 귀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 ②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 ③ 중도포기자가 많다 □ ④ 힘든 일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 ⑤ 교회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 ⑥ 문제가 거의 없다 □ ⑦ 기 타 ( )

47.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 ① 봉사자 개인적 차원에서 동원
□ ② 각 기관별 및 부서별로 예산을 책정
□ ③ 바자회나 이벤트행사를 통해 동원
□ ④ 교회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를 책정
□ ⑤ 기타 ( )

48. 자원봉사자는 주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① 목회자 □ ② 사무직원 □ ③ 사회복지 전공자
□ ④ 각 부서의 장 □ ⑤ 기타 ( ) □ ⑥ 관리자 없음

49. 자원봉사자의 교육이나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교회 내에서 강습을 통해서 □ ② 총회나 노회를 통해서
□ ③ 대학의 연수를 통해서
□ ④ 지역사회복지관의 교육을 통해서
□ ⑤ 기타( ) □ ⑥ 실시하지 않는다

Ⅳ. 목회자 일반사항

※ 마지막으로 귀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D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여

D2. 귀하의 출생 년도는 언제입니까? 19_____년

D3. 귀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 ① 목사 □ ② 부목사/전도사 □ ③ 장로
□ ④ 권사 □ ⑤ 사회복지사

D4. (목사님의 경우만) 목사안수는 몇 년도에 받으셨습니까? 19_____년

D5. 현재의 교회에 언제 부임(출석)하셨습니까? 19_____년

D6. 귀하의 출신대학(학부)은 어느 곳입니까?

□ ① 일반대학**(D6-1로)** ↓ □ ② 신학대학 □ ③ 기타( )

D6-1. 일반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다면 전공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인문과학 (국어, 외국어, 철학, 역사 등)
□ ②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 경영, 신방, 사회복지 등)
□ ③ 자연과학, 공학 (생물, 물리, 화학, 컴퓨터, 전자, 전기 등)
□ ④ 예·체능대학 (미술, 음악, 체육 등)
□ ⑤ 기타 ( )

D7.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① 신학대학원(신학석사) □ ② 신학대학원(목회학, 선교학 박사 등)
□ ③ 일반 대학원(석사) □ ④ 일반 대학원(박사)
□ ⑤ 야간특수대학원(석사) □ ⑥ 기타( )

D8. 귀하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D9. 귀하께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D9-1로 갈 것)** ↓ □ ② 아니오

D9-1. **(D9의 '①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만)** 귀하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경험에 비추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항 목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었다					
2) 사회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3) 나 자신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					
4)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가 향상되었다					
5) 기존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					
6)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도의 기초가 닦여졌다					
7) 지역사회 복지관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D1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귀하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소극적이었다 □ ② 소극적인 편이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적극적인 편이었다
□ ⑤ 매우 적극적이었다 □ ⑥ 참여 안함

D11. 귀하께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12. 귀하께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13. 귀하께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 ① 이웃을 돕고 싶어서 □ ②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 ③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 ④ 여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 ⑤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하여 □ ⑥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 ⑦ 친지나 이웃의 권고에 의하여
□ ⑧ 사회복지 기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 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 ⑩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 ⑪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음/참여할 의향 없음

D14. 귀하께서는 교인들에게 자원봉사를 어느 정도 권장하십니까?

□ ① 매우 권장하고 있다 □ ② 약간 권장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 ⑤ 반대하고 있다

D15.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에 관하여 요청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항 목	14-1. 요청 여부	14-2. 참여여부
1) 복지활동을 위한 기금에 교회가 참여하도록 요청 받음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참여 □ ② 비참여
2) 목회자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상담 또는 자문을 요청함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상담지원 □ ② 비참여
3) 목회자가 복지기관의 행사에 어떤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요청 받음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참여 □ ② 비참여
4) 복지시설·기관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받음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지원 □ ② 비참여
5) 시설·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에서 홍보해 줄 것을 요청 받음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홍보 □ ② 비참여
6) 시설이나 기관의 직원이 목회자를 방문하여 섭외한 일이 있음	□ ① 있다 **(14-2로)** → □ ② 없다	□ ① 협조 □ ② 비협조

D16. 귀하께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다 □ ②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방문한다
□ ③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D16-1로 갈 것)** ↓

D16-1. **(D16의 ③의 경우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면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한달에 한 번 이하 □ ② 한달에 한두 번 □ ③ 거의 매주

D17.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